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1048-01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12.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 제1부 교육과정의 이해 1
 - I. 교육과정의 이해 3
 - 1. 교육과정의 의미와 법제적 근거 3
 - 2. 교육과정의 수준 4
 - 3. 교육과정 관련 법령 7
 - II.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과 주요 특징 9
 - 1. 개정의 배경과 방향 9
 - 2. 개정의 추진 절차와 과정 10
 - 3. 주요 개정 내용과 특징 12
 - 4. 총론 문서 체제의 주요 특징 14

- 제2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이해 19
 - 교육과정의 성격 21
 -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22
 - 1.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22
 - 2.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30
 - 3. 학교급별 교육 목표 36

II.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39

- 1. 설계의 원칙 39
- 2. 교수·학습 48
- 3. 평가 61
-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64

III.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68

- 1. 기본 사항 68
- 2. 편제와 학점 배당 기준 77
- 3.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06
- 4. 특수한 학교 141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145

- 1. 교육과정 질 관리 145
- 2. 학습자 맞춤형교육 강화 149
- 3. 학교의 교육 환경 조성 158

참고문헌 169

부 록 173

제 1 부

교육과정의 이해

- I. 교육과정의 이해
- II.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과 주요 특징



I

교육과정의 이해

1. 교육과정의 의미와 법제적 근거

가. 교육과정의 의미

교육과정(教育課程, curriculum)의 의미는 관점이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다. 가르치고 배워야 할 지식 또는 그 구성단위의 한 형태인 교과들의 체계로 해석되기도 하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경험의 총체로 해석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계획한 교과목이나 학습 내용의 편제나 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1954년에 고시된 제1차 교육과정¹⁾에 반영되어 있는데, 제1장 총칙의 제2조에서는 “본령에서 교육과정이라 함은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제2차 교육과정²⁾에서는 “교육과정은 곧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론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학교 밖의 경험까지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거나, 계획하지 않은 비의도적인 경험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 더 나아가 학교생활 경험의 부정적인 측면들도 교육과정으로 개념화해야 한다거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 등 교육과정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험과 학생이 학습을 통해 경험하는 내용으로 총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 또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1) 문교부령 제35호(1954. 4. 20),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2) 문교부령 제119호(1963. 2. 15.).

따라서 교육과정이란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법적 근거

국가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개발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0>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신설 2021.7.20>
-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를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주체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시·도 교육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3항에서는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의 주체를 교육부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과정의 수준

교육과정은 주도하는 주체(중앙정부, 시·도 교육청, 학교)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 지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제5차 교육과정까지 교육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결정 방식을 채택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중앙에서 결정하고 학교는 이를 시행하는 역할로 한정되었다.³⁾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부터 지역

3) 이 시기에도 지역 및 학교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제2차 교육과정에서도 교육과정 운영의 첫째 원칙으로서 지역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사회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켜

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준과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이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 수준에서 결정하여 고시한 일반적 기준을 의미한다. 기준의 제정과 고시는 과거의 「교육법⁴⁾」이나 현행 「초·중등교육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혹은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되었다.⁵⁾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교과 교육과정)으로 구분되며, 총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②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 ③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 ④ 학교 교육과정 지원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의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 학습 및 평가에 대한 지침 등이 제시된다.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 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의 기본 설계도’이면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사회에서 요구되는 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각 지역 사회의 학교는 국가적 기준에 의거하여 각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시책 및 지역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의 목표 및 각 교과 지도 내용 선정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 범위에서]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도 내용 이외의 것을 첨가 지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제4차와 제5차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는 지역 사회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수준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 4) 1949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교육법」 155조 1항은 “대학·사범대학·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각 교과의 교수요지, 요목급수업 시간[수]는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 5) 교육과정의 명칭은 제7차 교육과정까지는 ‘1차’, ‘2차’ 등의 차수에 따른 구분 방식을 택하였으나, 수시 개정 체제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2007 개정 교육과정’ 등과 같이 개정년도를 밝혀 명명하였다.

나. 지역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의 공통적·일반적인 기준이므로,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발되며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 등 지역·학교의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 지역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며 장학, 교수·학습자료, 지역 교재 개발의 기본 지침이다.

다. 학교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대한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교사의 역할이 종래와 같이 교육과정 실행자 및 사용자, 교수자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자로도 확대되었고, 교육과정의 최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과정의 개발자·설계자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실태와 요구, 교원 조직과 교육 시설·설비 등 학교 실태, 학부모 의견 및 지역사회 실정 등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 등을 잘 파악하여 학생에게 최적의 학습 경험을 설계해 주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미를 교과목의 편성을 넘어서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습 경험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확장한 것이며, 학생의 학습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궁극적인 주체가 학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3. 교육과정 관련 법령

교육과정 관련 법령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관련 법령과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교육과정 관련 법령

교육과정 관련 사항	관련 법령
국가 교육과정 기준 설정	「헌법」 제31조 제1항 「헌법」 제31조 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국가 교육과정 기준 지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침, 법적 기준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8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항
교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학사일정 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학급편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
학교의 휴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수업 운영 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수업 시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48조
교류학습, 체험학습의 수업일수 인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진급과 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초등학교 수업연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교육과정 관련 사항	관련 법령
교과용 도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5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장학 지도	「초·중등교육법」 제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학생 자치활동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교 규칙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평가 및 평가 결과 기록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II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과 주요 특징

1. 개정의 배경과 방향

그동안 국가 교육과정은 국가·사회적 요구, 과학 기술과 학문의 발전, 교육 여건 등 교육 내·외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꾸준히 개정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학교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과 기후·생태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을 들 수 있다. 2016년에 등장한 알파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생태환경 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이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일깨워주었다. 저출산·고령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은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와 평생 학습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함양 등 질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둘째, 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도성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 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OECD는 2015년에 교육 정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교육 2030>(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프로젝트를 출범하였다.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OECD는 ‘미래학습의 틀 2030’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학습자의 특징을 ‘학습자 주도성(learner agency)’이라는 용어를 통해 개념화하였다. 주도성은 세계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주도성을 갖는 사람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설계할 줄 아는 능력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맞춤형 교육 체제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다.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은 OECD의 ‘미래학습의 틀 2030’에서도 강조되고 있지만, 특

히 학생들이 책임감과 역량을 갖춘 주체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 설계 진로에 적합한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게 지원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인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넷째,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와 교육과정 분권화 및 자율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개정 시기마다 자율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개선 과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심화 문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급 간 통합운영학교의 증가 현상 등 학교 교육과정·편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개정 과정에서 고려하였다.

2. 개정의 추진 절차와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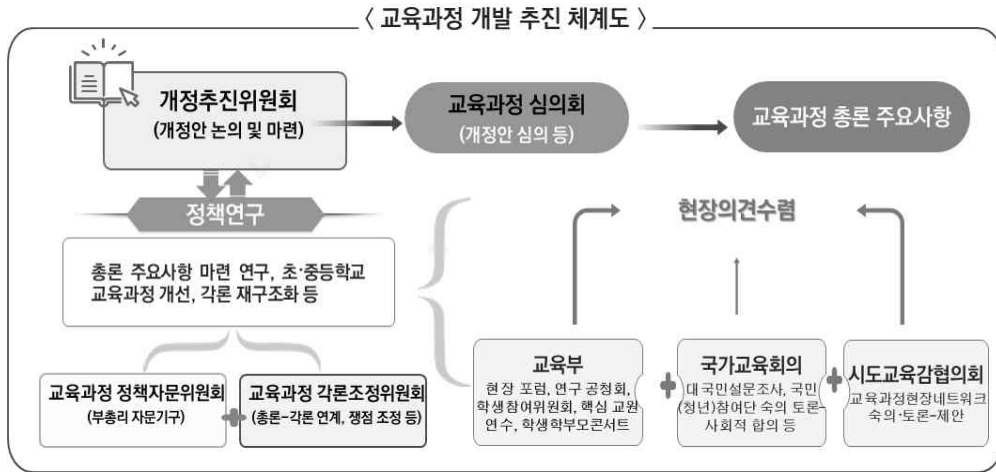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추진 체계를 도입하여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 체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개정의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전문화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정책수요자들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교육과정 개발하였다.

둘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 교육 관련 주체들이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셋째, 일반 국민 누구나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교육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추진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교육과정 개발 추진 체계도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부모, 교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및 개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논의하고, 관계자 및 국민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숙의·토론하며, 총론 주요 사항 및 총론 시안 등을 마련하는 등 교육과정 개정을 총괄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자문 및 제언을 받을 수 있도록 범사회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아울러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 강화, 교과 내용 중복 해소, 이견 조율·조정을 위해 국가 교육과정 각론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의견 수렴 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총론 주요사항 관련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전문직 의견 수렴, 교육과정 권역별 핵심교원 연수를 통한 의견 수렴, ‘학생·학부모 공감&소통 콘서트’를 통한 의견 수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현장소통 포럼,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한 학생·지역인사 의견 수렴, 국가교육회의 주관 대국민 설문조사와 국민(청년)참여단의 집중 숙의와 쟁점 토론 및 사회적 합의 과정 추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의한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구성 운영, 교원단체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 총론 및 교과별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도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추진된 국민참여형 의견 수렴 온라인 플랫폼이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최초의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3. 주요 개정 내용과 특징

가. 교육과정 개정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다. 포용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소양이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인격 등 교육의 전통적인 가치를 요약해 주며, 창의성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소양 등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요약한다. 이에 따라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②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③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 구현, ④ 디지털·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였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비롯한 디지털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정보교육 시수를 확대하였다. 또한 기후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이 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과제에 대한 대응 능력과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미래 사회 변화 대응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학습과 탐구 능력 함양이 요구되며, 교과 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의 기반이 되는 언어·수리·디지털 소양 등 기초소양 함양이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학생의 인격적 성장과 주도성 함양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인성과 품성의 함양 등이 교육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더 나아가 학습자들이 주도성, 즉 ‘자신의 삶과 주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성찰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설계한 진로에 맞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학생의 특성과 요구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및 학교 간 그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책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에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하여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 사이의 상호 협조 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원격교육의 확대 및 디지털 시대 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하였다. 인공지능의 발달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원격교육, 수업용 소프트웨어 활용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설계를 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체제의 구축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개별화 맞춤형 평가 및 지도 체제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업 설계·운영 및 평가에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 및 도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 및 기자재 확충과 교사의 디지털 에듀테크 활용 역량과 교수·학습 및 평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연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나. 학교급별 주요 개정 내용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군)의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을 개선하고, 한글 해득 교육과 놀이 및 신체활동 내용을 강화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통합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화하였고, 기초 문해력 강화 및 한글 해득 교육을 위해 국어 시수를 34시간 증배하였다. 초등학교 1~2학년 ‘안전한 생활’은 통합교과와 연계하여 재구조화하였다. 안전교육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체험·실습형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 움직임 기회 제공을 위해 ‘즐거운 생활’ 교과에 실내외 놀이 및 신체활동을 강화하였다.

중학교는 자유학기 편성 영역 및 운영 시간을 조정하였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하여 학교 교육과정 시수 편성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유학기의 영역을 기존 4개 영역(주제 선택, 진로 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 170시간에서 2개 영역(주제 선택, 진로 탐색 활동) 102시간으로 조정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편성 시간은 기존의 3년간 총 136시간(연간 34~68시간)을 3년간 총 102시간(연간 34시간)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에 고등학교에서 교과별로 배울 학습 내용과 진로 및 이수 경

로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을 도입하고 자유학기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학기 단위로 과목 이수와 학점 취득을 완결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였다. 학기 단위 과목 운영에 따라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체육, 예술, 교양은 3학점)으로 조정하고, 선택과목의 증감 범위도 ± 1 로 개선하여 학생이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을 중심으로 비판적 질문, 실생활 문제해결, 주요 문제 탐구 등을 위한 글쓰기, 주제 융합 수업 등 실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 외에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하고 재구조화하였다. 공통과목은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 이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 구성하며, 일반선택과목은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하도록 하는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선택과목은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으로 구성되며, 새로 도입한 융합선택과목은 교과 내 및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되었던 전문교과 I 은 일반고 학생들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로 통합하였다. 또한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미래 직업 세계 변화에 요구되는 기초소양 및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공통과목을 확대하고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과목으로 재구조화하였다.

4. 총론 문서 체제의 주요 특징

가. 총론 문서 구성 방향

교육과정 총론은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2 교육과정 개정에서 총론 문서 구성은 다음을 고려하여 개선하였다.

첫째, 총론 문서에 담아야 할 ‘일반적인 기준’의 내용 범위와 지침의 구체화 수준을 적정화하였다. 학교 교육의 보편적인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되 학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자율성 확대의 취지는 학습자의 능력 수준, 적성과 진로 계획, 흥미와 관심 등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주는 데 있다는 점을 명료화하였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총론 문서 체제(목차, 서술 구조)를 체계화하였다. 내용을 서술할 때 유사성 및 관련성을 고려하여 범주화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위계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원칙을 먼저 제시한 후 세부 사항들은 그 하위 항목으로 다룸으로써 지침과 기준의 구조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나. 총론 문서 구성의 주안점

1)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총론 문서를 구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다양한 가치와 요구를 반영할 때 ‘교육과정 과부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서로 대립하거나 상충하는 가치들을 반영해야 할 경우, 교육적 가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이를 기초로 편향성 문제를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앞의 두 원칙을 구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서는 여러 가치의 세부 항목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지양하고, 유사한 가치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더 포괄적인 상위 개념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총론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치를 교과 교육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총론-각론 사이의 연계를 강화한다.

2) 총론 문서의 가독성과 활용도 제고

교육과정 총론 문서의 전체적인 흐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목차의 순서를 조정하였는데, 총론 문서의 Ⅰ장에서는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구하고자 하였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핵심역량 및 교육목표 등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향하는 큰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어 Ⅱ장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과 방향, 즉 ‘교육적 기준’들을 먼저 제시한 이후, Ⅲ장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끝으로 IV장에서는 현재와 같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역할을 제시하되, 업무의 지원 주체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던 방식에서 지원 업무의 영역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총론 문서의 가독성 제고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장별 안내문을 제시하였다. 이는 각 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주요 내용과 구조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시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하였다.

다. 총론 문서 체제의 특징

위와 같은 고려사항을 반영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 체제를 세부적인 목차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 목차의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의 성격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1.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2.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3. 학교급별 교육 목표		3. 학교급별 교육 목표
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II.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1. 기본 사항		1. 설계의 원칙
2. 초등학교		2. 교수·학습
3. 중학교		3. 평가
4. 고등학교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I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I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1. 기본 사항
2. 교수·학습		2. 초등학교
3. 평가		3. 중학교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고등학교
		5. 특수한 학교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	1. 교육과정의 질 관리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2. 학습자 맞춤형교육 강화
		3. 학교의 교육 환경 조성

고시문과 교육과정 총론 문서 사이에 위치하였던 ‘교육과정의 성격’을 총론 문서의 일부로 포함하되, 장·절의 번호는 부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의 성격에 대한 진술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문장 진술 형식을 수정하였다.

I 장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제1절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어떤 맥락에서 왜 개정이 추진되었는지를 먼저 밝히고, 그 배경을 바탕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개정하고자 하였는지 설명하고 있어 교육과정의 내용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절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에서는 개정의 배경과 주안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핵심역량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절에서는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문서 내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점은 그동안 III장에서 제시되었던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II장에 제시하고 제목을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으로 수정한 것이다. 먼저, 장의 제목을 수정한 이유는 ‘설계’라는 용어가 ‘편성’이라는 용어에 비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개념화하는 용어라고 보았다. 학교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것이 ‘교과목 시수의 편성’을 넘어서서 ‘학습 경험의 종합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II장 1절의 제목을 ‘기본 사항’이 아닌 ‘설계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II장과 III장의 순서를 바꾼 이유는 몇 가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총론 문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국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한 후,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방향 및 교과별 시수 편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교육과정 총론의 II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 및 평가의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교육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III장은 지켜야 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원칙들을 총론 문서의 앞부분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II장과 III장의 위치 변경의 한 가지 이유가 된다.

III장에서는 2015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 장에서 ‘편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제시된 ‘법적’ 기준들이 대체로 교과목 시수의 편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1절에서는 모든 학교급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2~4절은 학교급별 편성·운영의 기준을 제시하며, 5절은 특수한 학교의 편성·운영 기준을 제시하였다.

IV장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지침들은 국가와 교육청 등 지원 주체별로 제시되었던 것을 교육과정의 질 관리, 학습자 맞춤형교육 강화, 학교의 교육 환경 조성 등 지원 내용의 영역별로 재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제 2 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이해

교육과정의 성격

-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II.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 III.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 기준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 나. 학교 교육과정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주도성과 자율성, 창의성의 신장 등 학습자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 다.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 라. 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학교와 시·도 교육청, 지역사회,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 마.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가와 시·도 교육청, 학교 수준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반으로 삼아야 할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이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즉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법률적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유지하되, 문장의 진술 형식에서 변화가 있었다.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이나 교육의 변화 방향보다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법적 지위나 역할이 드러나도록 진술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이 포함해야 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발전해 왔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과정의 변화를 요청하는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생태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의해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 주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교육과정 의사 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의 교육과정 발전 방향을 계승하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가.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한다.

나.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다.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한다.

- 마.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을 강화한다.
- 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사.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국가 교육과정 총론 문서 첫 장인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의 일반적인 논리에 따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설명하였다. 이와 달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순서와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1절로 제시하였다. 이는 본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구성의 중점을 먼저 설명하여,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가.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발전해 왔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과정의 변화를 요청하는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생태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의해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 주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교육과정 의사 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의 교육과정 발전 방향을 계승하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와 도전을 제시하고,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즉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한 사회의 변화상과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등을 제시하였다.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 과제와 관련하여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 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의해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 중요해지고, 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현 요구와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나. 교육과정 구성 중점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가.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한다.

나.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다.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한다.

마.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을 강화한다.

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사.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의 본질이 교육이 지닌 본연의 가치와 교육적 전통을 계승하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사

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의 비전은 변화할 수 있으나, 그 기저에 놓인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은 교육과정의 중점 내용으로서 바탕이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다. 포용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소양이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인격의 함양 등과 같은 교육의 전통적인 가치를 대표한다. 창의성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 중 하나이자, 경쟁력 있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 중 하나로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의미한다.

한편 주도성은 자주성, 자기관리 역량, 자율성 등의 개념에 더하여 공적인 책임 의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교육의 개인적 측면과 공공성 측면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도적인 사람은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성찰하며 개척하는 사람이자,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세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성장해가는 사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과 함께 제시된 7개의 항목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주안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상위 3개 항목에서는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능력과 소양으로 미래 대응 능력과 주도성, 인격적 성장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으로 제시하였다. 즉,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능력과 소양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미래 대응 능력과 주도성

가.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한다.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과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첫 번째 역량이다. 미래 대응 능력은 창의성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적합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도성은 불확실한 미래 사회가 지속적인 평생 학습을 요구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능력으로서 강조하였다.

●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

나.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공동체 의식은 포용성의 가치를 반영하며 존중, 배려, 협력 등을 핵심 요소로 포함한다. 공동체 의식은 UNESCO 등이 인류공동체의 과제로 강조하는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다만,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강조가 자칫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므로,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인 성장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였다.

●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다.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 도입된 개념인 기초소양은 교과 학습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되는 소양이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과 평생 학습을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언어·수리·디지털 소양을 기초소양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초소양의 함양은 학습 격차를 완화하는 핵심적

인 과제라는 점에서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언어 소양은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맥락에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글과 말을 통해 정보를 이해·해석하고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기초적인 문해력과, 영상, 사진, 그래픽 등 다양한 매체 형식을 활용하여 정보를 해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체 문해력을 포함한다.

수리 소양은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초적인 수리 연산 능력은 물론 복잡한 문제를 수리적으로 해석하고 사고하며 수리적 추론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과,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정보를 추출하며 규칙성을 찾아내어 활용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디지털 소양은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기와 프로그램 및 기술의 활용 능력과 함께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의 원리에 대한 이해, 전자 정보 관리와 분석 능력, 디지털 윤리 의식, 디지털 안전 및 보안 의식 등을 포함한다.

●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한다.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익혀야 하는 학습 경험의 바탕 위에서 적성과 진로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더욱 적합한 풍부한 학습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추구해 온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부터 이수 과정의 다양화를 추진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수 과정의 다양화와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의 강화를 강조하며 선택 교과목의 다양하고 탄력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학생들의 주도적인 진로 설계와 이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을 적절한 시기에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 편제를 중시하고 있다.

● 깊이 있는 학습

마.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을 강화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올바른 학습의 상태를 ‘깊이 있는 학습’으로 요약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과 지식을 단순히 기억하고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각 교과의 고유한 핵심 개념과 핵심 아이디어 및 탐구 방식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깊이 있는 학습’은 교과 지식을 더 많이 학습해야 한다거나 더 어려운 수준까지 학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개념과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면화하고 생각이나 경험과 연결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때 그 지식은 무기력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지식이 되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능동적 참여와 학습의 질 개선

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수업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내는 수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여’는 단순한 수업 출석이나 활발한 활동의 수준을 넘어서, 학생의 관심과 호기심에 기반한 ‘생각의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곧 학생이 몰입의 경험과 학습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또는 학생의 일상 세계와 연결된 적절한 탐구 질문을 제시하여, 학생의 호기심을 유발해 내는 것이 수업 설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평가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해서는 평가의 주된 목적이 학생의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수업 등에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부족한 점을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는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의 과정, 사고의 과정, 학습의 과정을 점검하는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 자율화·분권화에 기초한 협력체제 구축

사.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에 기초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협조체제 구축을 강조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 및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 확대 요구가 증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경쟁이 아닌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
록

2.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가.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 나.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추구하는 인간상’은 초·중등 교육을 통해 학생이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특성을 제시한 것으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를 구체화해 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논의 과정에서, 교육과정에 담겨야 할 추구하는 인간상에 관한 주요 키워드는 주체성, 책임 의식, 진로 설계 등 자기주도성 관련 키워드, 도전, 진취성 등 창의·융합·혁신 관련 키워드, 포용, 협력, 공감 등 존중과 관련되는 키워드가 자주 언급되었다. 이들 키워드는 제5차 교육과정부터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인간상으로 꾸준히 제시되었던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과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던 인간상이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을 갖는 가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그간의 인간상을 유지하되, ‘자주적인 사람’을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즉,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교육과정의 비전에 따라, ‘주도성’의 개념과 가치를 포함하여 자주적인 사람의 특성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 자기주도적인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자기주도적인 사람은 전인(全人)적 성장을 도모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여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사람이다. 이때 전인적 성장이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하여 건강하고 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학생이 전인적 성장을 통해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고 건강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비전에 따라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창의적인 사람

나.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기초 지식과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이면서도 새로운 통찰력, 융통성 있는 발상의 전환, 새로운 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등을 가지고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사람이다. 창의적인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는 창의성의 바탕이 되는 폭넓은 기초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는 학생이 확산적 사고 능력, 논리적이며 비판적인 능력 등을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새로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민감하게 대처할 줄 알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특히 오늘날처럼 영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학생이 융통성 있게 발상을 전환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 교양있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은 인류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소양을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적 이해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학교는 학생이 여러 영역에서의 문화적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자신과 타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 더불어 사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춘 사람으로, 존중과 배려, 협력과 나눔을 실천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생이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지고 세계 시민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

나. 핵심역량 교육의 의미와 방향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마.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핵심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 내용이 유사하게 제시되었다. 다만, 기존의 ‘의사소통 역량’은 나와 나 사이, 나와 우리 사이의 소통과 배려와 협력 등을 강조하기 위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 자기관리 역량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란 자신의 삶, 학습, 건강,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관리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아정체성 확립, 자신감 획득, 자기 통제 및 절제,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자신의 감정 조절, 건강관리, 기초학습 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 진로 설계 능력, 합리적 경제생활, 여가 선용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 지식정보처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이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평가·선택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여기에는 논리적·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 지식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 해결 방안의 실행 및 평가, 매체 활용 능력 등의 하위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 창의적 사고 역량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이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기초 지식과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기술·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창의적 사고 기능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정의적 측면에서의 창의적 사고 성향으로서 민감성, 개방성, 독립성, 과제집착력, 자발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들을 융합하여 의미 있고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융합적 사고도 창의적 사고 역량의 하위 요소라 할 수 있다.

● 심미적 감성 역량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이란 다양한 가치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사회 현상들을 공감하고,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을 통해 삶의 의미와 사물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 문화적 상상력, 타인의 경험 및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 정서적 안정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의 추구하고 향유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 협력적 소통 역량

마.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이란 서로 다른 배경을 갖는 여러 개개인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의 힘을 모으고 생각을 나누는 데 필요한 역량이다.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 상징, 텍스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타인의 말과 글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언어적 표현 능력, 타인 이해 및 존중 능력, 갈등 조정 능력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 공동체 역량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량이란 지역·국가·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시민 의식, 준법정신, 질서 의식, 공정성과 정의감, 참여와 책임 의식, 협동과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3. 학교급별 교육 목표

가.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며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 4)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38조는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초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이러한 교육 목적에 기초하여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나.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41조는 중학교의 교육 목적을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중학교의 교육 목표는 이러한 교육 목적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1) 성숙한 자아의식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 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45조는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이러한 교육 목적에 기초하여,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학교급별 교육 목표의 관계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및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각각 서로 다른 측면에서 서로 다른 형식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하고 기대하는 교육의 성과를 나타낸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주로 교육받은 사람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특성을 요약하며, 핵심역량은 교육받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추구하는 인간상의 틀을 기반으로 삼아 학교급별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교육 목표라는 공식적인 형식에 맞추어 제시해 준다. 즉,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등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에 따라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과 학교급별 교육 목표와의 연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과 학교급별 교육 목표와의 연계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학교급별 교육 목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기 주도적인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자기 관리역량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1) 성숙한 자아의식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 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창의적인 사람	나.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지식 정보 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교양 있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심미적 감성역량 협력적 소통역량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며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3)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더불어 사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공동체역량	4)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Ⅱ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1. 설계의 원칙

‘설계의 원칙’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반영해야 할 주요 원칙들과 유의 사항 및 절차 등을 안내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되, 학생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폭 넓고 균형 있는 교육과정 설계·운영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과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민주적인 절차를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가.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방향과 기본 원칙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며, 학생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 1)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폭넓고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세계를 탐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 2) 학생 실태와 요구, 교원 조직과 교육 시설·설비 등 학교 실태, 학부모 의견 및 지역사회 실정 등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 3) 학교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학교 교육 기간을 포함한 평생 학습에 필요한 기초소양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습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 5)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학교와 시·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활동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 6)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설계와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질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7)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방향

- 1)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폭넓고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세계를 탐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학교가 교육과정의 자율적 설계·운영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학교 교육의 방향은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폭넓고 다양한 세계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은 특정 교과 영역에 편중되지 않는 폭 넓고 균형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고려 사항

- 2) 학생 실태와 요구, 교원 조직과 교육 시설·설비 등 학교 실태, 학부모 의견 및 지역사회 실정 등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 설계·운영은 학생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는 교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실태, 학교의 실정,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국가 수준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만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교의 교육 여건 및 환경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학교가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 다양한 교육 활동의 설계·운영

- 3) 학교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활동의 설계·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

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교육 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이 지침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한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근거가 된다.

● 기초소양 함양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 함양 지원

- 4) 학교 교육 기간을 포함한 평생 학습에 필요한 기초소양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습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은 모든 학습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일차적으로는 학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더 나아가 미래 사회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평생 학습을 위해 모든 학생이 기초소양을 충실하게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맞는 학습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역시 학생들이 주도성을 갖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학교는 모든 학생이 기초소양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충실하게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방과 후 활동 및 방학 중 활동의 설계와 운영

- 5)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학교와 시·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활동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하고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방과 후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외부의 지원 방안이나 지도 교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 활동

- 6)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설계와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학생을 지도하거나 멘토가 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가정 및 지역과의 연계

- 7)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가정·지역의 연계 지도가 필요하다. 학교·가정·지역의 연계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보호자) 간 신뢰 형성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교육 방침을 설명하고 학부모의 요구를 적절히 수렴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가정은 학교로 학생에 대한 정보, 학교 교육에 대한 의견 및 협력적 노력을 제공하고, 학교는 가정으로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교 교육 프로그램 정보, 양질의 학부모 교육 등을 제공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학교와 가정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소속 지역의 시·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학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교·가정·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속적·지속적인 학생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절차와 과정

나.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설계·운영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1) 교육과정의 합리적 설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2) 학교는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학교장의 교육적인 판단과 신념, 전 교직원의 전문성과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해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교원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설계·운영을 위해 학교 교육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국가 교육과정의 정착과 학교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과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운영

- 1) 교육과정의 합리적 설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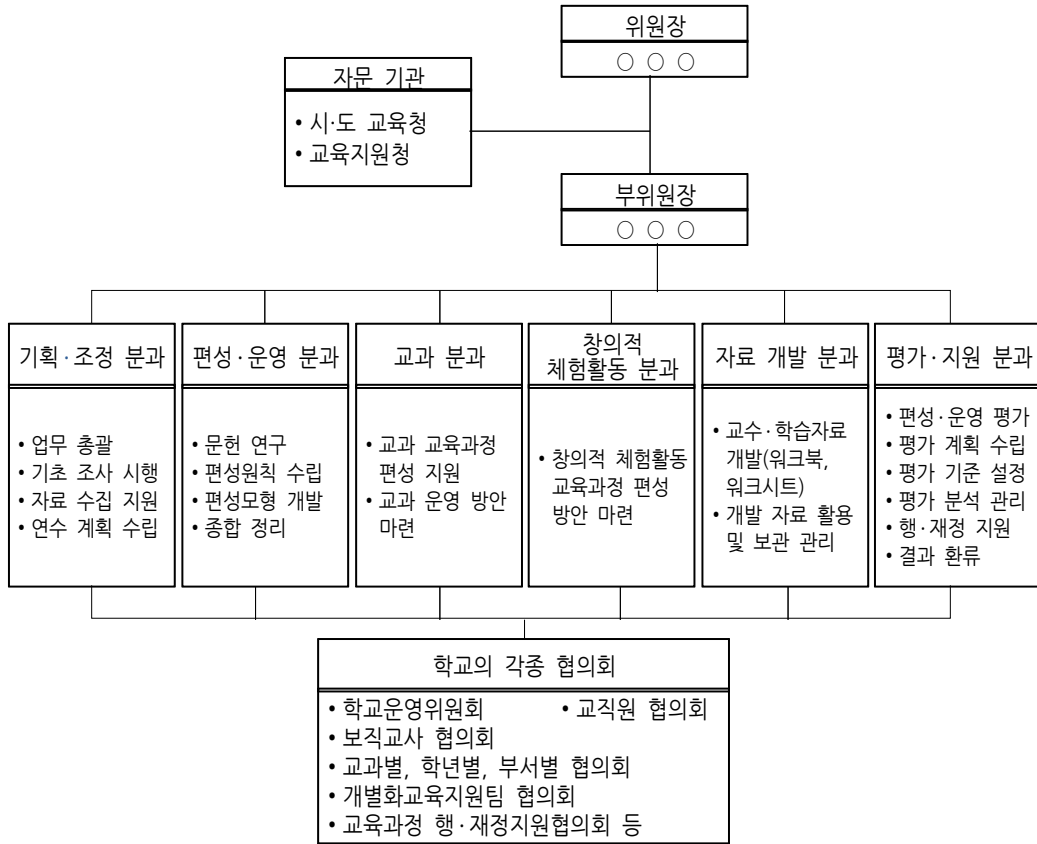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 특수교사가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간 체계적인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외에도 교직원 회의, 동학년 회의, 교과 협의회 등 기존의 각종 학교 조직이나 협의회를 활용하여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모든 교직원이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능동적·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원 양성 대학, 지역 유관 단체, 교육 전문기관의 교수나 자문 위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교육 수요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진·심의진을 구성하고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여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지구별 교육과정 위원회 및 장학 위원회, 교과 연구회를 통하여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기구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자문 내용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방향과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 계획의 수립,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 활동,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점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구와 연수 지원,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대한 평가, 평가 결과에 기초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 개선 방안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2]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조직(예시)



● 교육 활동 개선을 위한 교사 모임 및 연수, 연구 활동

2) 학교는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효율적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와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의 공유,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수·학습자료의 공동 제작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동학년 협의회, 교과별 협의회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하며, 교수·학습과 평가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 활동과 연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교 및 시·도 교육청에서는 물적·인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와 개선

3)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적 설계·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계획,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였는지, 지역과 학교의 특성, 학부모나 학생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였는지,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매년 자체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평가 참여자로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선정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평가 결과는 학교 구성원 및 지역 사회 관계자와 공유하고,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평가 기준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안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자체 평가 기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4〉 학교 교육과정 자체 평가 기준(예시)⁶⁾

평가 영역	평가 요소	자체 평가 지표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과정	• 전년도 학교 교육과정 계획·운영실태·성과를 충실하게 분석하였는가?
		• 지역사회·학교의 특성 및 학생·학부모·교사의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조사하고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가?
		•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간의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였는가?
		• 교원·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과정에 만족하는가?
계획 내용	계획 내용	• 국가 교육과정 기준 및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학교의 교육 중점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학교 특성과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계획하였는가?

평가 영역	평가 요소	자체 평가 지표
학교 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영역별 평가 활동을 계획하였는가?
		• 교원·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 내용에 만족하는가?
	교과 교육	• 교과 교육 계획과 실제의 교수·학습 및 평가는 일치하였는가?
		•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과별 교수·학습이 이루어졌는가?
		• 교과별 역량, 목표, 내용에 일관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창의적 체험활동	• 교원·학생·학부모는 교과 교육 활동 운영에 만족하는가?
		•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과 실제 운영은 일치하였는가?
		•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는가?
		• 창의적 체험활동 목표 및 내용에 일관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지원 체제	• 교원·학생·학부모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만족하는가?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연수 및 장학을 실시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부모, 지역 인사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였는가?
학교 교육과정 성과	교육 성과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교육시설, 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는가?
		• 교원·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의 지원 내용과 방식에 만족하는가?
		• 학생은 교과 성취기준에 도달하였는가?
		•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 학생은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교육 성과 활용	•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계획별 교육 성과에 만족하는가?
		• 교원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제와 각 교육계획에 따른 학교 변화에 만족하는가?
		• 학교·교원·학생은 교육과정 목표 달성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였는가?
		• 학교·교원은 평가 결과 문제점 및 개선 사항, 교육과정 성과 등을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계획·운영에 활용하였는가?

6) '학교 교육과정 평가 도구의 타당화 및 평가 실행 체제 연구'(민용성 외, 2009)에서 제시한 내용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일부 변형하였음

2. 교수 · 학습

가. 깊이 있는 학습

가. 학교는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 · 학습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 1)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각 교과목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 · 이해, 과정 · 기능, 가치 · 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 2)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학습이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도록 한다.
- 4) 학생이 여러 교과의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며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5) 교과의 깊이 있는 학습에 기반이 되는 언어 · 수리 · 디지털 기초소양을 모든 교과를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깊이 있는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익히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내면화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깊이 있는 이해와 수행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학습자의 경험과 지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사고 및 탐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습자가 교과 고유의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과가 기반하는 학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과 개념들을 서로의 관계 속에서 구조화하며 의미를 생성해가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능은 분절적인 기술이나 활동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사고와 과정을 통해 지식을 적용, 확장, 실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핵심 아이디어 중심의 수업 설계

- 1)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각 교과목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내용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차원으로 구성하고 각 차원의 내용 요소가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하였다. 핵심 아이디어는 교과 기저의 근본(fundamental, core, big)이며, 학습의 토대가 되는 개념들을 의미한다. 이는 영역별로 학습에 초점을 부여함으로써 깊이 있는 학습의 토대를 마련하며, 영역을 구성하는 학습 내용의 세 차원(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기준이 된다. 핵심 아이디어는 교과 학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면화, 자기맥락화해야 할 아이디어로서,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수준에서 표현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그 의미나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학습이 요구된다.

각 교과의 핵심 아이디어는 학교급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학습 내용으로서, 서로 다른 학교급에서 같은 수준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동일한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학년이 거듭될수록 그 내용의 폭이 넓어지고 이해 수준이 깊어지게 된다. 이렇게 축적되는 경험을 통해 학생은 교과 내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과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의 연계성 고려

- 2)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교과 내 영역 간, 또는 교과 간 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한 수업은 학생의 통합적 사고를 촉진하면서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한다. 교사는 교과 간 내용의 연계를 통한 융합적 사고에 초점을 맞춰 학습자가 여러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서로 관련지어 습득하고 이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교과 지식을 학습할 때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교과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왜 그러한 지식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학습에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사는 중요한 개념 및 핵심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공통성 혹은 관련성을 가지는 내용을 연결하며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의미 있게 파악하게 되고,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배운 내용을 서로 연결하여 창의적으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 삶과 연계한 의미 있는 학습

- 3)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학습이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도록 한다.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강조된 사항의 하나는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과 학습 내용이 학생에게 친숙한 일상생활의 맥락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학생이 이해할 때 ‘삶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습에 몰입하는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삶과 연계된 학습은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 맥락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교과 학습 내용을 실생활 문제에 적용해 보는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은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 지식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교과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세계의 다양한 맥락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탐구 방법의 학습 및 학습에 대한 성찰

- 4) 학생이 여러 교과의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며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올바른 학습을 위해서는 교과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학생 스스로 교과 지식을 교과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생에게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며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학생이 학습 전반에 걸쳐 자신의 학습 과정과 사고 과정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타인지 혹은 성찰은 학습자의 역량 계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메타인지는 학습에서 교과와 관련된 문제 해결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 해결 상황에서 적용되는 사고 과정으로, ‘사고에 대한 사고’ 혹은 ‘학습에 대한 학습’으로 표현된다. 즉, 학생이 학습 과정을 점검 및 개선하는 경험은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기초소양 학습

5) 교과의 깊이 있는 학습에 기반이 되는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을 모든 교과를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은 교과 학습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소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 기초소양은 자기주도 학습과 평생학습을 위한 기초가 되며,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일정한 성취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반드시 길러주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기초소양은 모든 교과 학습의 기초가 되며 또한 각각의 기초소양은 모든 교과 학습을 통해 함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학 교과 학습에서 지문으로 제시된 문항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 소양이 필요하며, 사회나 과학과 학습에서 그래프 등에 제시된 수치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리 소양이 요구된다. 또한, 수학, 사회, 과학 교과에서 다양한 개념과 용어를 학습하는 것은 곧 언어 소양을 길러주는 학습경험이 될 수 있으며, 여러 교과 교육의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데이터 분석의 학습경험은 수리 소양을 함양하는 학습경험이 될 수 있다.

나. 학생의 능동적 수업 참여

나.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 1) 학습 주제에서 다루는 탐구 질문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며, 토의·토론 학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2) 실험, 실습, 관찰, 조사, 견학 등의 체험 및 탐구 활동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3)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협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충분히 갖도록 한다.

깊이 있는 학습과 함께 강조한 것은 학생의 능동적 수업 참여이다. 학습은 학생이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학생은 그 의미 구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생의 능동적 수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학습 주제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의 즐거움’은 단순한 흥미나 동기 부여가 아니라 탐구 질문을 통해서 학습 내용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학습에의 능동적 참여에서 강조되는 것은 탐구와 문제 해결이다. 역량과 주도성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는 높은 수준의 사고와 탐구를 통해 학생에게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학습하는 법을 익히도록 지도하며, 교사와 함께 지식을 구성하는 수업을 운영해야 한다.

● 탐구 질문을 활용한 능동적 참여 유도 및 토의·토론 학습 활성화

- 1) 학습 주제에서 다루는 탐구 질문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며, 토의·토론 학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탐구 질문은 ‘정답 찾기’가 아닌 여러 관점과 해석을 유도하는 질문으로서,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의미 있는 탐구와 비판적 사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탐구 질문은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의 암기가 아니라 능동적인 탐구, 비판적 사고, 여러 관점에서 해석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는 탐구 질문을 활용하여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주장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토론 학습, 여러 사람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며 결론을 내는 토의 학습은 학생이 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학생은 토의·토론 학습 활동을 통해 교사뿐 아니라 동료 학생들과 활발한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기도 하며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거나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학교에서의 수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의·토론 학습을 강화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 체험 및 탐구 활동 경험 제공

2) 실험, 실습, 관찰, 조사, 견학 등의 체험 및 탐구 활동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이 자신의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강의식 위주의 수업을 지양하고, 실제로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 학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협동 학습 경험 제공

3)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협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충분히 갖도록 한다.

협동 학습은 소집단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공동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함께 활동하는 학생 주도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다. 다양한 능력과 수준 및 특성을 갖는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과제를 해결해 가는 학습 경험을 통해 학생은 긍정적인 학습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소집단 구성원 간 끊임없는 대화와 참여를 통한 협력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인지적 성장이 일어난다. 또한 학생은 공동의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소집단 내 다른 구성원을 격려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구성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해보고, 구성원 간의 관계가 공동 과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은 인지적 영역의 발달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구성원의 역할에 따른 책임,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갈등 조정 능력 등의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다. 학생 맞춤형 수업 설계

다. 교과와 특성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학습 활동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한다.

- 1) 학생의 선행 경험, 선행 지식, 오개념 등 학습의 출발점을 파악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소재, 자료, 활동을 다양화한다.
- 2) 정보통신기술 매체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 3) 다문화 가정 배경, 가족 구성, 장애 유무 등 학습자의 개인적·사회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수업에 반영할 때 편견과 고정 관념, 차별을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4)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여 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도록 노력하며, 학습 결손이 발생한 경우 보충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마다 선행 학습의 정도나 현재의 지식수준, 학습 능력, 학습 선호도, 학습에 대한 동기 등이 서로 다르므로 학생 개개인에게 적절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춤형 수업은 학생이 의미를 구성하고 이해에 도달하는 속도나 방식이 다르고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러한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다. 교사는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 등을 고려하여 수업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여러 유형의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학생의 특성 고려

- 1) 학생의 선행 경험, 선행 지식, 오개념 등 학습의 출발점을 파악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소재, 자료, 활동을 다양화한다.

교사는 학생의 준비 정도,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속도, 선호하는 학습 방법,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학습 방법과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개별 학습 활동은 단순히 학생이 혼자서 하는 학습의 형태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며, 활동 방식으로는 학생 개인 활동 또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소집단 활동이 가능하다. 교사는 학습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소재, 자료, 활동, 결과 표현 방법, 환경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활성화

2) 정보통신기술 매체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디지털 정보 기술의 발달은 맞춤형 학습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개개인의 학습 경험과 관련되는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현재 학습 수준 등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맞춤 학습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예를 들어 맞춤교육 지원 플랫폼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 선지식과 오개념의 특징, 학습 방법, 관심사 등에 대한 학습자 특성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학습 분석 기술의 적용과 각 특성에 적합한 학습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별화 맞춤형 교육의 활성화 과정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의 문제, 편향성과 공정성의 과제, 접근성의 격차 발생의 가능성 등 예상되는 부작용 문제들에 대해서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 개인적·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수업

3) 다문화 가정 배경, 가족 구성, 장애 유무 등 학습자의 개인적·사회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수업에 반영할 때 편견과 고정 관념, 차별을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학생의 개인적·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나오는 경험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한 기초가 되며 더 나아가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환경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적·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수업은 해당 학습자가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여 학습의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그릇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학습 결손 예방과 보충 학습 기회 제공

4)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여 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도록 노력하며, 학습 결손이 발생한 경우 보충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 결손이나 학습 격차의 심화 문제는 책임 교육의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일차적으로는 학습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초소양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규 수업을 통해 일정한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일과 전·후에 별도의 시간을 활용하여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교과 특성 고려하여 운영 시기와 방법, 대상 학생을 적절히 조정한다. 아울러 학부모와의 협조를 통하여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효율적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

라.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하고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공간과 환경을 조성한다.

- 1) 각 교과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 운영을 활성화하며,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연한 학습공간을 활용한다.
- 2)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3) 다양한 지능정보기술 및 도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한다.
- 4) 학교는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구, 기계, 약품, 용구 사용의 안전에 유의한다.
- 5)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교육적 요구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공학 지원 등을 제공한다.

학생이 학습하기에 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과 함께 학습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학습자가 서로 존중하고 모든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교실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실험, 실습 및 기구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지능 정보 기술과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AI 학습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서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교과 교실제 운영

- 1) 각 교과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 운영을 활성화하며,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연한 학습공간을 활용한다.

각 교과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교실제를 활성화한다. 지식 암기가 아닌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

용과 학습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시설과 기자재를 구비한 교과 교실이 필요하다. 탐구가 가능한 수학실, 실험 중심의 과학실, 악기가 갖춰진 음악실 등 교과 학습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전용 교실의 운영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2)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을 지원하고 교과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학습자료, 학습 속도가 다른 학생들을 배려한 학습자료,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학습자료,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등의 공동 개발과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실천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 우수사례 또는 각종 교육 자료전이나 경진대회에 출품된 우수 교수·학습 자료를 공개하고 일반화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3) 다양한 지능정보기술 및 도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한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학습자에게 더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디지털 학습 환경의 구축은 학습자가 자신의 특성과 속도에 맞게 학습하고,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의 기반이 된다. 아울러 다양한 학습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접근하게 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시각화, 게임 기반 학습 등을 통해 더 흥미롭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또한 학습의 과정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생의 학습 성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

- 4) 학교는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구, 기계,약품, 용구 사용의 안전에 유의한다.

실험 실습이나 실기 지도 시 시설·기구, 기계, 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과학 실험이나 실습을 주로 하는 교과, 체육 및 예술 교과의 실기 지도에 있어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 위기관리 차원에서 실습 시설·기구 및 기계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실습 시설·기구 및 기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이 실습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더불어 실험·실습실에 필요한 안전 용구를 구비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사용 방법 및 대피 요령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지원

- 5)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교육적 요구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공학 지원 등을 제공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교육적 요구가 다양한 학생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은 맞춤형 교육과 모두를 위한 포용 교육의 맥락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들이 교수·학습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공학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의사소통 지원이란 상대방의 의사 표현을 이해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때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학습 및 사회 참여를 증진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행동 지원이란 정서 또는 행동상의 어려움으로 교육활동 중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활동 환경을 분석하고 개선해 사회적으로 허용된 정도와 형태로의 행동 변화를 위해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공학 지원이란 주로 시·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습, 정보 습득, 의사소통, 일상생활 수행, 신체 특정 부위 작동, 이동, 기타 다양한 활동에 참여가 어려울 때 이를 지원하는 공학적이며 도구적인 지원을

말한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보조공학 지원은 시·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등 다양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교육과 일상생활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교수·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평가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맥락에서 평가가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평가의 목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의 일관성에 관한 지침, 그리고 교과 특성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 등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가. 학생 학습의 향상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가.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1)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수 지도를 실시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 2) 학교와 교사는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평가의 목적은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 즉,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교사는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학생의 정확한 학습 상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수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학습의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학습 과정을 확인하고 환류하여,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과 사고 능력 함양을 지원한다.
- 2)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이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3)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따라 성취수준을 설정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에 반영한다.
- 4)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성취기준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 방법, 평가는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는 학습의 과정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즉, 수업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한 기록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을 살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의 결과가 학생에게 환류(feedback)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학생의 자기 평가와 성찰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학교는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메타인지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과정으로서, 학생은 자신의 학습 방법과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는 학생의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 수행평가의 내실화와 학생 맞춤형 평가 활성화

- 다. 학교는 교과목의 성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1) 수행평가를 내실화하고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2) 정의적, 기능적 측면이나 실험·실습이 중시되는 평가에서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척도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3) 학교의 여건과 교육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평가를 활성화한다.
 - 4) 개별 학생의 발달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 5)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평가한다.

역량 함양을 위한 평가는 학생이 수행을 통해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고, 고차원적 사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학습한 내

용의 기억이나 재생을 넘어서 다양한 맥락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는 과제나 문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 맞춤형 평가를 위해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특성을 좀 더 정교하게 진단하고,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 경험을 처방하는 ‘맞춤형 진단평가 및 처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습한 바를 평가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평가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담임교사나 교과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학생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평가 계획과 평가 방법의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의 조정이란 평가문항의 제시 방식, 답안 작성 방식, 평가 환경, 평가 실시 시간 등을 조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평가조정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필요시 개별화 교육지원팀에 필요한 평가조정 방안에 관한 협력을 요청하여 세부적인 평가 방법과 방향 등을 결정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참고).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 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장애,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언어 등에 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나.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교육의 기회와 학습 경험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 다. 학습 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및 통합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마.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 바.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과목과 함께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 교육적 편견 극복

- 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장애,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언어 등에 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점차 다원화되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특히 인종, 민족, 태어난 곳, 언어 등이 다른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 역할에 대한 편견 없는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각자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력이나 직업, 장애, 종교에 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이 아닌 개방적 관점과 태도를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 부당한 차별의 극복

나.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교육의 기회와 학습 경험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교육의 기회나 학습경험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교육의 평등을 구현하고 다양성을 존중·포용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학습자는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 언어, 능력, 성별, 종교, 성 정체성 등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교우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

다. 학습 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학교는 학습 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습 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한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로 과정을 설치·운영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이를 지구 단위에서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 배치, 보조공학 지원,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생이 장애 유형 및 정도, 교육적 요구 등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며,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귀국 학생 교육은 장기간의 해외 체류로 인하여 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내 학교 교육에의 적응이 곤란한 귀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일정 기간 집중적인 한국어 지도와 학습 결손 또는 부진 교과목의 보충 지도 및 생활 지도를 실시하여 귀

국 후 나타날 수 있는 학습 장애와 심리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생활 및 학습 적응을 용이하게 해 주어 국내 학교로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귀국 학생들이 해외에서 터득한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신장하고 경험을 통해 습득한 국제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야 한다.

● 특수학급 내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및 통합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은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은 통합교육의 철학과 원칙을 학생들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따르지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해당 학년군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

특수학급에서의 교육과정 조정은 교과 내 혹은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 내용의 난이도, 내용의 소재, 자료나 정보의 표현 방식 조정,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과의 연계 등으로 가능하다. 내용 연계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 성취기준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깊은 내용, 성취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발달 수준을 고려해 개발된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및 통합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해 이들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여 매 학기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참고)

●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 일정 수준의 한국어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생은 원칙적으로 일반 학급에 배치한다. 그리고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 및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반 학급에서 수업하기 어려운 기간에 한하여 특별 학급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 및 한국 문화 소양을 갖추어 나가면서 동시에 많은 교우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할 때는 일반 학생이 타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므로, 시·도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종교 과목 개설 시 고려사항

바.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과목과 함께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특히 건학 이념 또는 설립 취지가 분명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특정 종교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에서는 종교 과목을 단수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학생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종교 과목 개설과 관련한 학교의 방침을 충분히 알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Ⅲ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 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군)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다)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로 재분류한다.
-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따라야 할 학습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관심과 요구, 학교의 실정과 교사의 필요, 계절 및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연계 지도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 학업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아) 학교는 학교급 간 전환기의 학생들이 상급 학교의 생활 및 학습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연계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 자)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 차) 학교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 타)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격수업 운영 기준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 파)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하)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이 교육과정 해당 학년군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을 따르되,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과 연계하거나 대체하여 수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 구조

-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제를 달리하였다.

〈표-5〉 개정 시기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선택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3학년

● 학년(군) 및 교과(군)별 교육과정 편성

- 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군)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학년(군)과 교과(군)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학년(군)을 구분하여 교과(군)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3학년 3개 학년을 하나의 학년(군)으로 설정하여 교과(군)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학년군 설정

다)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학년군 체제를 설정하였다. 학년군 설정의 목적은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화 및 효율화를 기하는 데 있다.

〈표-6〉 학년군 설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1~3학년

●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군)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로 재분류한다.

교과(군)의 설정으로 교육과정의 수평적 연계성을 통하여 교과 간 소통과 교육 내용의 통합 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교과(군)을 통해 교과 간 내용 및 활동의 재구성을 촉진함으로써 학습 경험의 통합성 및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학교는 교과(군) 내 혹은 교과(군) 간 비슷한 주제의 교과목을 통합·연계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교과목별 수업 시수나 학점을 조정하는 등 수업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 고등학교 교과의 구분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고등학교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된다.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된다.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공통 과목은 학생의 기초소양

함양과 기본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되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유지되었다. 선택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과 진로 선택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변경되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은 과학, 체육, 예술 계열에 관한 과목이며, 보통 교과에 편제되었다. 전문 교과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 등을 위한 과목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으로 변경되었다.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습 순서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따라야 할 학습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관심과 요구, 학교의 실정과 교사의 필요, 계절 및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연계 지도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수·학습은 교육과정에 배열된 순서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학교, 교사, 학생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순서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교과목 집중이수

사) 학업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과목 집중이수는 학업 부담을 적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시행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유지되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제한이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는 학교의 여건, 학교급 및 교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는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진로연계교육**

아) 학교는 학교급 간 전환기의 학생들이 상급 학교의 생활 및 학습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연계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진로연계교육은 학생이 상급 학교나 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학교생활 적응, 교과 학습의 연계,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 등을 통해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이 자기 및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진로연계교육은 진로 탐색이나 진로 설계에 국한하지 않고, 상급 학교나 학년 진학 전 학교생활 및 학습 준비, 교과 학습 연계, 진학 준비 등에 중점을 두어 진로 교육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

자)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범교과 학습 주제를 교과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학교 실정에 따라 학년별로 운영할 수 있고,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전·건강 교육은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익혀야 할 내용, 즉 안전·재난, 보건 및 성교육,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 교육 등을 관련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인성 교육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등 생활 속의 윤리를 몸으로 익힐 수 있게 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며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로 교육은 자신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체험 활동 등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며,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익혀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민주 시민 교육은 건전한 사회를 위해 청렴·반부패 문화를 형성하고, 헌법의 정신 및 법질서를 존중하도록 하며,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인권 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양성평등, 노동인권 존중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각종 폭력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다문화 교육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증가, 외국인 근로자 및 탈북 학생 유입 확대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세계시민 교육 및 국제이해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이해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통일이 왜 필요한지 학습하고 통일의 방법과 내용, 통일 이후의 사회와 경제, 문화, 정치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통일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갖도록 하였다.

독도 교육은 학생들에게 국토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금융 교육은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 창업(기업가)정신, 복지와 세금·금융 생활·지적 재산권, 사회적 경제 등을 학습하여 합리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교육, 기후·생태환경교육 등을 통해 더 나은 환경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안전교육

차) 학교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기본 사항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내용을 추가하여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안전교육은 모든 학교급에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안전교육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등학교 1~2학년의 ‘안전한 생활’을 통합교과로 재구조화하였다. 전 학교급에 걸쳐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되,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 계기 교육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계기 교육은 시기별, 계절별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제나 변화하는 사회 현안에 대하여 학생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계기 교육은 교과 협의회나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교수·학습 계획과 학습 자료를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또한 계기 교육은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계기 교육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거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의 경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계기 교육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원격수업 운영

타)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격수업 운영 기준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원격수업은 ‘지능정보기술과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24조(수업 등)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 10. 20.>
1.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조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 효과를 제고하는 등의 교육상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원격수업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등 지침을 따라야 한다. 또한,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는 교육상 필요한 원격수업과 비상시 원격수업 전환 대비를 위해 원격수업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원격수업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외 새로운 과목 개설**

파)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외의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됨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도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목 신설의 주체를 시·도 교육청과 학교로 확대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도록 하였다.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외의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변화 지원

하)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이 교육과정 해당 학년군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을 따르되,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과 연계하거나 대체하여 수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 교육과정의 해당 학년군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을 따른다.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필요시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과 연계하거나 대체하여 수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 연계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 성취기준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깊은 내용, 성취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할 때에는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및 통합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도 수행이 어렵거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성화된 진로·직업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관련 교과 내용, 생활기능 및 진로와 직업 교육, 현장 실습 등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영역과 내용은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며, 대체할 경우 교수·학습과 평가 내용이 일치될 수 있도록 교육 계획 및 평가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편제와 학점 배당 기준

가. 편제

-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 (1) 보통 교과
- (가) 보통 교과의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 (나)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 (2) 전문 교과
- (가) 전문 교과의 교과(군)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경영·금융, 보건·복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미용, 관광·레저, 식품·조리, 건축·토목,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안전·소방, 농림·축산, 수산·해운, 융복합·지식 재산 과목으로 한다.
- (나) 전문 교과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으로 구분한다.
-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군)는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편성한다. 교육과정 운영 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서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 **고등학교 교과의 구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를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다시 전문 교과를 전문 교과Ⅰ과 전문 교과Ⅱ로 구분하여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대상 교과는 전문 교과Ⅰ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상 교과는 전문 교과Ⅱ로 하였다. 이와 달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Ⅰ을 보통 교과로 하되,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설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전공 관련 이수 학점을 표시하기 위해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별도의 표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상의 교과를 의미한다.

〈표-7〉 고등학교 교과 구조 비교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보통 교과	공통		보통 교과	공통	
	선택	일반		선택	일반
		진로			진로
전문 교과	전문 교과Ⅰ		전문 교과	융합	
	전문 교과Ⅱ			선택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1) 보통 교과

(가) 보통 교과의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 **보통 교과의 교과(군) 구조의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통 교과는 교과 영역과 교과(군)의 이원적 분류 체제로 구성하였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영역을 삭제하고 교과(군) 체제로 일원화하였다. 교과 영역을 삭제함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초

교과 영역에 독립된 교과로 포함되었던 ‘한국사’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의 공통 과목으로 배치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AI 소양 함양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에 과목으로 포함되었던 정보가 별도의 교과로서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에 추가되었다.

〈표-8〉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교과(군) 구조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영역		교과(군)	교과(군)	공통 과목	
교과 (군)	기초	국어	국어	국어	
		수학	수학	수학	
		영어	영어	영어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사회 (역사/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통합사회1, 통합사회2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체육· 예술	체육		체육	
		예술		예술	
	생활· 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 한문/교양	

(1) 보통 교과

(나)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 공통 과목의 성격

공통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기 이전에 고등학교 수준의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모든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통 과목을 유지하였다.

● 선택 과목의 구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공통 과목을 이수하고 난 뒤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학습과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학습이 가능하도록 선택 과목을 두고 있다.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다.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으로 모든 학생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으로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융합 선택 과목은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과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으로, 융합적인 주제 학습 및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이나 실생활 맥락 속에서 적용·실천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목이다.

<표-9>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편제와 성격 비교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공통 과목	선택 과목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갖추기 위한 과목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과목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을 위한 과목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 과목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과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2) 전문 교과

- (가) 전문 교과의 교과(군)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경영·금융, 보건·복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미용, 관광·레저, 식품·조리, 건축·토목,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안전·소방, 농림·축산, 수산·해운, 융복합·지식 재산 과목으로 한다.
- (나) 전문 교과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으로 구분한다.

● 전문 교과의 교과(군) 구조의 변화

전문 교과는 신산업, 신기술의 생성 및 융복합화, 교육과정 운영의 현장성, 새로운 직무에 따른 다양한 인력 양성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과 기준학과의 재구조화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군)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같은 17개 교과(군)으로, 8개는 그대로 유지되고, 8개는 재구조화되었으며, 1개는 신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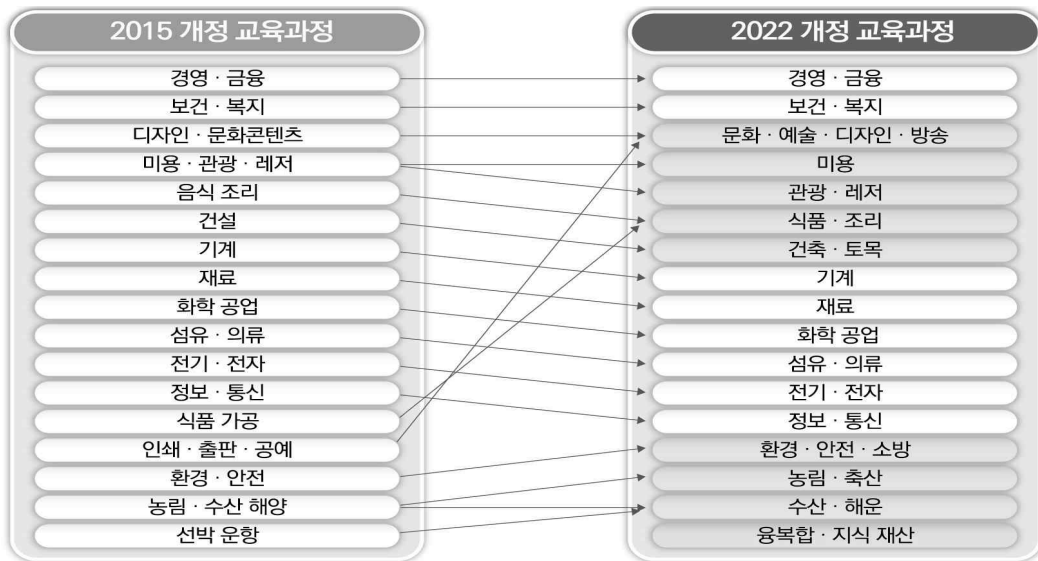
재구조화된 17개의 교과(군)은 미래 직업 세계의 다양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과목 단위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서 학과별로 특정 교과(군)의 교육과정 이외에, 산업 수요, 인재 양성 유형, 학교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교과(군)의 과목들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 기준학과의 재구조화

교과(군) 구조의 변화와 연계하여 기준학과도 현행 체제에서 노동시장의 고졸 인력 수요, 직무, 자격 등과 교과(군)의 매칭, 디지털 기술 등에 의한 새로운 산업과 융·복합기술 분야에서 고졸 수준의 인력에 대한 적절한 직무와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구조화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교과(군)의 산업 분야 및 고졸 직무 수준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였고 산업 및 학과 개편 등의 경향을 반영하여 유사 기준학과들을 통합하였으며, AI와 디지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신산업 및 신기술, 융복합 분야를 신설하고, 점차 수요가 줄어드는 산업 분야의 학과를 폐지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47개 기준학과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8개로 11개가 증가하였다. 소프트웨어, 바이오 화학

공업, 에너지 화학공업, 소방,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발명특허 등 신산업 분야의 기준학과들을 신설하였고, 조리과, 식음료과, 관광과, 레저산업과 등 통합되어 있던 기준학과들을 분야별로 분리하였다.

[그림-3]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문 교과(군) 교과(군) 구조 변화



[그림-4]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문 교과(군)의 기준학과

교과(군)	기준학과	교과(군)	기준학과	교과(군)	기준학과
1 경영·금융	·경영사무과 ·세무회계과 ·금융정보과 ·마케팅과 ·유통과	7 건축·토목	·공간정보과 ·건축인테리어과 ·토목과 ·스마트시티과 ·건축과	13 정보·통신	·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소프트웨어과
2 보건·복지	·보육과 ·복지과 ·간호과	8 기계	·기계과 ·조선과 ·공조산업설비과 ·항공과 ·자동차과	14 환경·안전·소방	·환경과 ·산업안전과 ·소방과
3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공예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방송과	9 재료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15 농림·축산	·농업과 ·농업기계과 ·원예과 ·농업토목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동물자원과
4 미용	·미용과	10 화학 공업	·화학공업과 ·바이오화학공업과 ·에너지화학공업과	16 수산·해운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항해과 ·기관과
5 관광·레저	·관광과 ·레저산업과	11 섬유·의류	·섬유과 ·의류과	17 융복합·지식 재산	·스마트공장과 ·발명특허과
6 식품·조리	·조리과 ·식음료과 ·식품가공과 ·제과제빵과	12 전기·전자	·전기과 ·전자과		

● 전문 교과 의 구조

전문 교과는 직업·진로 경로, 인력 양성 유형 등에 따른 학습의 계통과 위계를 강화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의 연계 및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군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학생들의 전문 교과 선택권을 확장하였다.

전문 교과의 선택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표-10〉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편제 비교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문 교과Ⅱ			전문 교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
직업세계에 필요한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	기준학과별 NCS 실무 과목의 선행 과목 또는 해당 분야의 기초 역량 제고를 위한 과목	기준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에 적합한 교육에 필요한 NCS 능력단위를 선정하여 재구성한 과목	직업세계에 필요한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	교과(군) 및 기준학과별 기초역량 함양을 위한 과목 또는 전공 실무 과목의 선수과목	교과(군) 및 기준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에 적합한 실무역량 함양을 위한 과목

전문 공통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 추가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노동 인권과 산업 안전 보건’, ‘디지털과 직업 생활’ 2개 과목이 신설되었다. 전문 공통 과목은 학교 여건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전공 일반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179개 과목으로 구성된 기초 과목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54개 과목 신설과 17개 과목 폐지를 통해 216개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전공 실무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368개 과목으로 구성된 실무 과목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32개 과목 신설과 91개 과목 폐지를 통해 309개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기존의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영역이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 세 영역으로 재구조화되었다. 기존의 봉사 활동은 동아리 영역의 하위 활동으로 편성되었으나, 그 성격상 창의적 체험활동 모든 영역의 활동과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영역 변경을 고려하여 각 영역의 하위 활동이 다소 변화되었다.

<표-11>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활동 비교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영역	활동	영역	활동	예시 활동
자율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적응활동 • 창의주제활동 등 	자율·자치 활동	자율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탐구 활동 • 적응 및 개척 활동 •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자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생활습관 형성 활동 • 관계 형성 및 소통 활동 • 공동체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체육활동 • 학습문화활동 • 실습노작활동 • 청소년단체활동 등 	동아리활동	학술·문화 및 여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 동아리 • 예술 동아리 • 스포츠 동아리 • 놀이 동아리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봉사 활동 • 지역사회 봉사 활동 • 청소년 단체 활동
진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이해활동 • 진로탐색활동 • 진로설계활동 등 	진로 활동	진로 탐색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탐색 활동 • 진로 이해 활동 • 직업 이해 활동 • 정보 탐색 활동
			진로 설계 및 실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준비 활동 • 진로계획 활동 • 진로체험 활동

나. 학점 배당 기준

1)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교과(군)	공통 과목	필수 이수 학점	자유 이수 학점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8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공통수학1, 공통수학2	8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8	
사회 (역사/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6	
	통합사회1, 통합사회2	8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10	
체육		10	
예술		10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소계		84	90
창의적 체험활동		18(288시간)	
총 이수 학점		192	

- 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의 기본 학점은 4학점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1, 2의 기본 학점은 3학점이며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④ 과학탐구실험1, 2의 기본 학점은 1학점이며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학, 체육,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필수 이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이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학점 이상,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는 1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⑥ 국어, 수학, 영어 교과(군)의 이수 학점 총합은 81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교과 이수 학점이 17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이수 학점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⑦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수는 최소 이수 학점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⑧ 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 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고등학교 학점의 의미 및 수업량 기준의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단위 수업량이 17회(16+1)였지만 2025년 입학생부터는 1학점 수업량이 16회이다. 이와 같이 1학점 수업량이 17회에서 16회로 변경되었지만, 수업일수는 기존의 190일 이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사 운영 방안을 적절하게 수립해야 한다. 학교는 16회 수업 실시 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과목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하거나 진로·진학 상담 등 학교에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고등학교에서 1시간 수업의 의미**

고등학교에서 1시간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는 경우에 따라 1시간 수업을 50분을 기준으로 증감하여 운영하거나 블록 타임제로 운영하는 등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시간 수업을 50분보다 적게 운영할 경우 감축된 시간은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공통 과목의 기본 학점은 4학점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1, 2의 기본 학점은 3학점이며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④ 과학탐구실험1, 2의 기본 학점은 1학점이며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학, 체육,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공통 과목의 재구조화와 증감 편성·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는 학생이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이수하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통 과목을 ‘공통 과목1, 공통 과목2’로 구성하여 학기 단위 과목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통 과목은 기본 학점에서 1학점 감하여 편성·운영 가능하나 증배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한국사1, 한국사2’의 경우 공통 과목이므로 증배하여 편성할 수 없고, 동시에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 3학점으로만 편성·운영해야 한다.

- ⑤ 필수 이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이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학점 이상,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는 1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한 것은 학생이 균형 있게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 수를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교과(군)에서 각 2학점씩 감축하였고 한국사, 체육, 예술,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의 필수 이수 학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교과 총 필수 이수 학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총 필수 이수 학점인 94학점보다 축소하여 84학점으로 설정되었다. 이것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⑥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이수 학점 총합은 81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교과 이수 학점이 17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이수 학점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총 이수 학점의 적정화

다양한 교과에 대한 균형 있는 학습을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교과 영역의 이수 단위 총합이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국어, 수

학, 영어 교과외의 총 이수 학점이 81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174학점의 50%는 87학점이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 교과 영역에 포함되었던 한국사 6학점을 제외하면 국어, 수학, 영어 교과외의 총 이수 학점은 81학점으로 제한된다. 학교는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교과 이수 학점이 17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교과외의 이수 학점은 초과 이수 학점의 50%를 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⑦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수는 최소 이수 학점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은 18학점이며,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이므로 단위 학교에서는 이를 충족해야 한다. 괄호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 18학점을 학점당 16시간으로 환산하여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시간 수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 수를 시간 수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이나 하위 활동 시수를 배정할 때, 학점 수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 수를 고려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⑧ 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 총 이수 학점 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총 이수 학점 수를 제시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라는 말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학점제 기반의 교육과정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생이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이 최소 192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의거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졸업의 기준을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2.]

2)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과(군)	공통 과목	필수 이수 학점	자율 이수 학점
보통 교과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24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공통수학1, 공통수학2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사회 (역사/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6	
		통합사회1, 통합사회2	12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체육		8	
	예술		6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한문/교양		8	
소계			64	30
전문 교과	17개 교과(군)	80		
창의적 체험활동			18(288시간)	
총 이수 학점			192	

- 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의 기본 학점은 4학점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1, 2의 기본 학점은 3학점이며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④ 필수 이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이다.
- ⑤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필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 ⑥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수는 최소 이수 학점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⑦ 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 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고등학교 학점의 의미 및 수업량 기준의 변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업량 기준은 학점이며, 1학점은 고등학교에서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학기당 16회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교육부 고시 제2019-211호, 2019.12.27.), 특성화 고등학교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교육부 고시 제2022-2호, 2022.1.17.) 고등학교 수업량의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되었으며, 1학점의 수업량은 17회에서 16회로 조정되었다.

이와 같이 1학점 수업량이 17회에서 16회로 변경되었지만, 수업일수는 기존의 190일 이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사 운영 방안을 적절하게 수립해야 한다. 학교는 16회 수업 실시 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과목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하거나 진로·취업 상담 등 학교에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고등학교에서 1시간 수업의 의미

고등학교에서 1시간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는 경우에 따라 1시간 수업을 50분을 기준으로 증감하여 운영하거나 블록 타임제로 운영하는 등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시간 수업을 50분보다 적게 운영할 경우 감축된 시간은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공통 과목의 기본 학점은 4학점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1, 2의 기본 학점은 3학점이며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공통 과목의 재구조화와 증감 편성·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는 학생이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이수하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통 과목을 ‘공통 과목1, 공통 과목2’로 구성하여 학기 단위 과목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통 과목은 기본 학점에서 1학점 감하여 편성·운영 가능하나 증배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한국사1, 한국사2’의 경우 공통 과목이므로 증배하여 편성할 수 없고, 동시에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 3학점으로만 편성·운영해야 한다.

④ 필수 이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이다.

●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한 것은 학생이 균형 있게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 수를 보통교과의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에서 2학점 감축하였고, 전문 교과에서 6학점 감축하였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과 총 필수 이수 학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총 필수 이수 학점인 152학점보다 축소하여 144학점으로 설정되었다. 이것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⑤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필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그동안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중심으로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법령에 제시된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기준을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특수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교과 필수 이수 학점을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다.

⑥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수는 최소 이수 학점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은 18학점이며,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이므로 단위 학교에서는 이를 충족해야 한다. 괄호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 18학점을 학점당 16시간으로 환산하여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시간 수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 수를 시간 수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이나 하위 활동 시수를 배정할 때, 학점 수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 수를 고려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⑦ 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 **총 이수 학점 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총 이수 학점 수를 제시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라는 말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학점제 기반의 교육

과정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생이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이 최소 192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의거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졸업의 기준을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2.]

다. 보통 교과

교과 (군)	공동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국어	공동국어1 공동국어2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수학	공동수학1 공동수학2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II,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과제 탐구	
	기본수학1 기본수학2				
영어	공동영어1 공동영어2	영어 I, 영어 II, 영어 독해와 작문	영미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 영어,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직무 영어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기본영어1 기본영어2				
사회 (역사 / 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통합사회1 통합사회2		정치, 법과 사회, 경제,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 관계의 이해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시스템과	행성우주과학	

교과 (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체육		체육1, 체육2	운동과 건강,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스포츠 생활1, 스포츠 생활2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와 창작,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음악과 미디어, 미술과 매체
기술· 가정/ 정보		기술·가정	로봇과 공학세계, 생활과학 탐구	창의 공학 설계, 지식 재산 일반, 생애 설계와 자립*, 아동발달과 부모
		정보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제2 외국어 / 한문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독일어 회화, 프랑스어 회화, 스페인어 회화, 중국어 회화, 일본어 회화, 러시아어 회화, 아랍어 회화, 베트남어 회화,	독일어권 문화, 프랑스어권 문화,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 문화, 일본 문화, 러시아 문화, 아랍 문화, 베트남 문화
			심화 독일어, 심화 프랑스어, 심화 스페인어, 심화 중국어, 심화 일본어, 심화 러시아어, 심화 아랍어, 심화 베트남어	
		한문	한문 고전 읽기	언어생활과 한자
교양		진로와 직업, 생태와 환경	인간과 철학, 논리와 사고, 인간과 심리, 교육의 이해, 삶과 종교, 보건	인간과 경제활동, 논술

①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은 4학점이다. 단, 체육, 예술, 교양 교과(군)의 기본 학점은 3학점이다.

② 선택 과목은 1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 표시한 과목의 기본 학점은 2학점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체육 교과는 매 학기 이수하도록 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 실습이 있는 학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①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은 4학점이다. 단, 체육, 예술, 교양 교과(군)의 기본 학점은 3학점이다.
- ② 선택 과목은 1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 표시한 과목의 기본 학점은 2학점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 및 증감 편성·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으로, 증감 범위는 1학점으로 통일하였다. 다만, 체육, 예술, 교양 교과(군)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은 3학점으로, 1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고,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생애 설계와 자립’의 과목은 기본 학점을 2학점으로, 1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표-12〉 과목별 이수 기본 학점과 증감 범위

과목 구분	과목	기본 학점	편성·운영 범위	비고
공동 과목	공통국어1, 공통국어2 공통수학1, 공통수학2 공통영어1, 공통영어2 통합사회1, 통합사회2 통합과학1, 통합과학2	4학점	3~4학점	1학점 내 감(-) 가능, 증(+) 불가
	한국사1, 한국사2	3학점	3학점	감(-) 불가, 증(+) 불가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1학점	1학점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에서는 과학탐구실험 편성 제외 가능
선택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 교과(군)의 선택 과목	4학점	3~5학점	1학점 내 증감(±) 가능
	체육/예술/교양 교과(군)의 선택 과목	3학점	2~4학점	1학점 내 증감(±) 가능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생애 설계와 자립	2학점	1~2학점	1학점 내 감(-) 가능

- ④ 체육 교과는 매 학기 이수하도록 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 실습이 있는 학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체육 교과의 편성·운영**

체육 교과는 매 학기(3년간 총 10학점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한 지침은 고등학생의 신체 건강, 인성 교육, 사회성 발달, 학교 폭력 예방 차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시행된 것이다(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3.12.18.).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현장 실습이 있는 학년에서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체육 교과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계열	교과(군)	선택 과목				융합 선택
		진로 선택				
과학 계열	수학	전문 수학 고급 미적분	이산 수학	고급 기하	고급 대수	
	과학	고급 물리학 과학과제 연구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정보	정보과학				
체육 계열	체육	스포츠 개론 기초 체육 전공 실기 스포츠 경기 기술	육상 심화 체육 전공 실기 스포츠 경기 분석	체조 고급 체육 전공 실기	수상 스포츠 스포츠 경기 체력	스포츠 교육 스포츠 생리학 스포츠 행정 및 경영
예술 계열	예술	음악 이론 합창·합주	음악사 음악 공연 실습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음악과 문화
		미술 이론 조형 탐구	드로잉	미술사	미술 전공 실기	미술 매체 탐구 미술과 사회

계열	교과(군)	선택 과목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무용의 이해	무용과 몸	무용 기초 실기	무용 전공 실기	무용과 매체
		안무	무용 제작 실습	무용 감상과 비평		
		문예 창작의 이해	문장론	문학 감상과 비평	시 창작	문학과 매체
		소설 창작	극 창작			
		연극과 몸	연극과 말	연기	무대 미술과 기술	연극과 삶
		연극 제작 실습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의 이해	촬영·조명	영화와 삶
		편집·사운드	영화 제작 실습	영화 감상과 비평		
		사진의 이해	사진 촬영	사진 표현 기법	영상 제작의 이해	사진과 삶
		사진 감상과 비평				

- ①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과학, 체육, 예술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 ②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 및 증감 범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 ①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과학, 체육, 예술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선택 과목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계열별 이수 과목의 종류를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별도 제시하였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 대상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교과 I으로 제시하였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과목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 및 증감 범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 및 증감 범위 결정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이수 학점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정하지 않고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이는 학생 및 학교의 필요와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그 설립 취지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감은 해당 지역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며, 특히 학기 단위 과목 이수를 고려하여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 및 증감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라. 전문 교과

교과 (군)	선택 과목			기준 학과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경영 · 금융	성공적인 직업 생활 노동 인권과 산업 안전 보건 디지털과 직업 생활	상업 경제 기업과 경영 사무 관리 회계 원리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기업 자원 통합 관리 세무 일반 유통 일반 무역 일반 무역 영어 금융 일반 보험 일반 마케팅과 광고 창업 일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자 상거래 일반	총무 노무 관리 사무 행정 회계 실무 유통 관리 자재 관리 공급망 관리 물류 관리 원산지 관리 무역 금융 업무 전자 상거래 실무	인사 비서 예산·자금 세무 실무 구매 조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수출입 관리 창구 사무 고객 관리 매장 판매	경영사무과 세무회계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마케팅과
보건 · 복지		인간 발달 보육 원리와 보육 교사 보육 과정 아동 생활 지도	영유아 건강·안전·영양 지도 사회 복지 시설 실무	영유아 놀이 지도 대인 복지 서비스	보육과 복지과 간호과

교과 (군)	선택 과목			기준 학과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아동 복지 보육 실습 영유아 교수 방법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복지 서비스의 기초 사회 복지 시설의 이해 공중 보건 인체 구조와 기능 간호의 기초 기초 간호 임상 실무 보건 간호 보건 의료 법규 치과 간호 임상 실무	요양 지원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 미디어 콘텐츠 일반 영상 제작 기초 애니메이션 기초 음악 콘텐츠 제작 기초 디자인 제도 디자인 일반 조형 색채 일반 컴퓨터 그래픽 공예 일반 공예 재료와 도구 방송 일반	영화 콘텐츠 제작 광고 콘텐츠 제작 게임 디자인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캐릭터 제작 VR·AR 콘텐츠 제작 제품 디자인 실내 디자인 편집 디자인 목공예 방송 콘텐츠 제작	음악 콘텐츠 제작 게임 기획 게임 프로그래밍 만화 콘텐츠 제작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제작 시각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 색채 디자인 도자기 공예 금속 공예 방송 제작 시스템 운용	문화콘텐츠과 디자인과 공예과 방송과
미용		미용의 기초 미용 안전·보건	헤어 미용 메이크업	피부 미용 네일 미용	미용과
관광 · 레저		관광 일반 관광 서비스 관광 영어 관광 일본어 관광 중국어 관광 문화와 자원 관광 콘텐츠 개발 전시·컨벤션·이벤트 일반 레저 서비스 일반	호텔 식음료 서비스 실무 국내 여행 서비스 실무 전시·컨벤션·이벤트 실무	호텔 객실 서비스 실무 국외 여행 서비스 실무 카지노 서비스 실무	관광과 레저산업과
식품 · 조리		식품과 영양 기초 조리 디저트 조리 식음료 기초 식품 과학 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한식 조리 중식 조리 바리스타 식공간 연출 축산 식품 가공 건강 기능 식품 가공	양식 조리 일식 조리 바텐더 수산 식품 가공 유제품 가공 김치·반찬 가공 식품 품질 관리	조리과 식음료과 식품가공과 제과제빵과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교과 (군)	선택 과목			기준 학과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식품 분석	음료·주류 가공 떡 제조 제빵	제과	
건축 · 토목		공업 일반 기초 제도 건축 일반 건축 기초 실습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 토목 일반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 건설 재료 역학 기초 토질·수리 측량 기초 드론 기초 스마트 시티 기초 건물 정보 관리 기초	철근 콘크리트 시공 건축 마감 시공 건축 설계 토목 시공 측량 공간 정보 융합 서비스 국토 도시 계획 주거 서비스	건축 목공 시공 건축 도장 시공 토목 설계 지적 공간 정보 구축 소형 무인기 운용·조종 교통 계획·설계	건축과 건축인테리어 과 토목과 공간정보과 스마트시티과
기계		기계 제도 기계 기초 공작 전자 기계 이론 기계 일반 자동차 일반 기계 기초 역학 냉동 공조 일반 유체 기계 산업 설비 자동차 기관 자동차 채시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선박 이론 선박 구조 선박 건조 선체 도면 독도와 제도 항공기 일반 항공기 실무 기초	기계요소 설계 선반 가공 연삭 가공 측정 특수 가공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건설 광산 기계 설치·정비 승강기 설치·정비 자전거 정비 사출 금형 제작 사출 금형 조립 프레스 금형 제작 프레스 금형 조립 냉동 공조 설계 보일러 설치·정비 피복 아크 용접 가스 텀스텐 아크 용접 보일러 장치 설치 자동차 전기·전자 장치 정비 자동차 채시 정비 자동차 도장 자동차 튜닝 전장 생산 항공기 기체 제작 항공기 기체 정비 항공기 왕복 엔진	기계 제어 설계 밀링 가공 컴퓨터 활용 생산 성형 가공 기계 수동 조립 운반 하역 기계 설치·정비 공작 기계 설치·정비 오토바이 정비 사출 금형 설계 사출 금형 품질 관리 프레스 금형 설계 프레스 금형 품질 관리 배관 시공 냉동 공조 유지 보수 관리 판금·제관 이산화탄소·가스 메탈 아크 용접 로봇 용접 냉동 공조 장치 설치 자동차 엔진 정비 자동차 차체 정비 자동차 정비 검사 선체 조립 선체 생산 설계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제작 항공기 가스 터빈 엔진 정비 항공기 계통 정비	기계과 공조산업 설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교과 (군)	선택 과목			기준 학과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경비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정비 항공기 정비 관리	소형 무인기 정비	
재료		재료 일반 재료 시험 세라믹 재료 세라믹 원리·공정	제선 압연 금속 재료 가공 도금 도자기 용융 세라믹 제조	제강 주조 금속 열처리 금속 재료 신뢰성 시험 탄소 재료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화학 공업		공업 화학 제조 화학 스마트 공정 제어 화공 플랜트 기계 화공 플랜트 전기 바이오 기초 화학 에너지 공업 기초 에너지 화공 소재 생산	화학 분석 화학 공정 유지 운영 고분자 제품 제조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 에너지 설비 유틸리티	화학 물질 관리 기능성 정밀 화학 제품 제조 바이오 의약품 제조 화장품 제조 신재생 에너지 실무	화학공업과 바이오화학 공업과 에너지화학 공업과
섬유 · 의류		섬유 재료 섬유 공정 염색·가공 기초 패션 소재 패션 디자인의 기초 의복 구성의 기초 편물 패션 마케팅	텍스타일 디자인 제포 패션 디자인의 실제 서양 의복 구성과 생산 한국 의복 구성과 생산 패션 상품 유통 관리	방적·방사 염색·가공 패턴 메이킹 니트 의류 생산 패션 소품 디자인과 생산 비주얼 머천다이징	섬유과 의류과
전기 · 전자		전기 회로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자동화 설비 전기·전자 일반 전자 회로 전기·전자 측정 디지털 논리 회로 전자 제어	발전 설비 운영 전기 기기 설계 전기 기기 유지 보수 내선 공사 자동 제어 기기 제작 자동 제어 시스템 운영 전기 철도 시설물 유지 보수 전자 제품 생산 전자 제품 설치 정비 가전 기기 하드웨어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하드웨어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통신 기기	송·변전 배전 설비 운영 전기 기기 제작 전기 설비 운영 외선 공사 자동 제어 시스템 유지 정비 전기 철도 시공 철도 신호 제어 시공 전자 부품 생산 가전 기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가전 기기·기구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기구 개발 정보 통신 기기 하드웨어 개발 전자 응용 기기 하드웨어 개발 전자 응용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반도체 개발	전기과 전자과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
록

교과 (군)	선택 과목			기준 학과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 응용 기기 기구 개발 전자 부품 기구 개발 반도체 제조 반도체 재료 로봇 하드웨어 설계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로봇 유지 보수 의료 기기 인허가 LED 기술 개발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생산 로봇 기구 개발 로봇 지능 개발 의료 기기 연구 개발 의료 기기 생산 3D 프린터 개발	
정보 · 통신		통신 일반 통신 시스템 정보 통신 정보 처리와 관리 컴퓨터 구조 프로그래밍 자료 구조 알고리즘 설계 컴퓨터 시스템 일반 컴퓨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일반 사물 인터넷과 센서 제어	네트워크 구축 무선 통신 구축·운영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시스템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빅 데이터 분석 정보 보호 관리 사물 인터넷 서비스 기획	유선 통신 구축·운영 초고속망 서비스 관리 운영 응용 프로그래밍 화면 구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시스템 관리 및 지원 인공지능 모델링 컴퓨터 보안	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소프트웨어과
환경 · 안전 · 소방		인간과 환경 환경 화학 기초 환경 기술 환경과 생태 산업 안전 보건 기초 소방 기초 소방 법규 소방 건축 소방 기계 소방 전기	대기 관리 폐기물 관리 토양·지하수 관리 환경 생태 복원 관리 전기 안전 관리 화공 안전 관리 소방 시설 설계 소방 안전 관리	수질 관리 소음 진동 관리 환경 유해 관리 기계 안전 관리 건설 안전 관리 가스 안전 관리 소방 시설 공사	환경과 산업안전과 소방과
농림 · 축산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경영 재배 농산물 유통 농산물 거래 관광 농업 친환경 농업 생명 공학 기술 농업 정보 관리 농업 창업 일반	수도작 재배 육종 농촌 체험 상품 개발 스마트 팜 운영 과수 재배 화훼 장식 임업 중요 산림 보호 목재 가공 조경 설계	전특작 재배 종자 생산 농촌 체험 시설 운영 채소 재배 화훼 재배 버섯 재배 산림 조성 임산물 생산 펠프·종이 제조 조경 시공 종축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교과 (군)	선택 과목			기준 학과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원예 생산 자재 조경 식물 관리 화훼 장식 기초 산림 휴양 산림 자원 임산 가공 조림 조경 동물 자원 반려동물 관리 곤충 산업 일반 농업 기계 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운전 작업 농업용 전기·전자 농업 토목 제도·설계 농업 토목 시공·측량 농업 생산 환경 일반	조경 관리 수의 보조 절소 사육 가금 사육 말 사육 농업용 기계 설치·정비	애완동물 미용 돼지 사육 한우 사육 곤충 사육 농업 생산 환경 조성	
수산 · 해운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해양 생산 일반 해양 오염·방제 전자 통신 운용 어선 전문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수산 양식 일반 수산 경영 수산물 유통 양식 생물 질병 관상 생물 기초 수산 해양 창업 활어 취급 일반 해양 레저 관광 요트 조종 잠수 기술 항해 기초 해사 일반 해사 법규 선박 운용 선화 운송 항만 물류 일반 해사 영어 항해사 직무 열기관 선박 보조 기계 선박 전기·전자 기관 실무 기초 기관 직무 일반	근해 어업 해면 양식 내수면 양식 수상 레저 기구 조종 산업 잠수 어촌 체험 시설 운영 선박 갑판 관리 선박 안전 관리 기관사 직무 선박 보조 기계 정비	원양 어업 수산 종묘 생산 수산 질병 관리 일반 잠수 어촌 체험 상품 개발 선박 통신 선박 운항 관리 선박 기기 운용 선박 기관 정비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항해과 기관과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교과 (군)	선택 과목			기준 학과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응 복합 · 지식 재산		스마트 공장 일반 스마트 공장 운용 스마트 공장 설계와 구축 발명·특허 기초 발명과 기업가 정신 발명과 디자인 발명과 메이커	스마트 설비 실무 특허 출원의 실제	특허 정보 조사·분석 지식 재산 관리	스마트공장과 발명특허과

· 전문 교과의 과목 기본 학점 및 증감 범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 전문 공통 과목의 편성

전문 공통 과목은 직업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공적인 직업 생활’ 1개 과목이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노동 인권과 산업 안전 보건’, ‘디지털과 직업 생활’ 2개 과목이 신설되어 3개 과목으로 개정되었다. 전문 공통 과목은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라면 어느 학과에서나 선택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수 시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전공 일반 과목의 편성

전공 일반 과목은 교과(군) 및 기준학과별 기초 역량 함양을 위한 과목 또는 전공 실무 과목의 선수 과목을 의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 교과(군)별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의 설계’ 항목을 통해 기준학과별로 인력 양성 유형을 고려하여 전공 일반 과목과 전공 실무 과목 간의 위계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전공 실무 과목의 편성

전공 실무 과목은 교과(군) 및 기준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실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를 토대로 내용이 구성된다. 전공 실무 과목의 교과서로 사용되는 NCS 학습모듈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NCS 능력단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수·학습 자료를 의미한다.

〈표-13〉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예시(경영·금융 교과(군)의 전공 실무 과목 ‘인사’ 과목)

과목명	학습 영역	학습 요소
인사	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대장 등록하기 • 근태 관리하기 • 급여 계산하기 • 4대 보험 관리하기 • 연말 정산 실시하기
	퇴직 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예정자 확인하기 • 퇴직 절차 진행하기

전공 실무 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의 내용 수준을 고려하여 고교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교육적 필요에 따라 NCS 능력단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전공 실무 과목을 구성했기 때문에 대부분 NCS 세분류와 전공 실무 과목이 1:1로 대응되나, 여러 NCS 세분류를 하나의 전공 실무 과목으로 구성한 多:1 대응 관계나, 하나의 NCS 세분류가 여러 개의 전공 실무 과목으로 상세화된 1:多的 관계도 있다.

· 전문 교과와 과목 기본 학점 및 증감 범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 전문 교과와 과목 기본 학점 및 증감 범위 결정

전문 교과와 과목 기본 학점 및 증감 범위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결정하지 않고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이는 학생 및 학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전문 교과와 과목 이수 학점 결정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 기본 학점 및 증감 범위를 토대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패키지에 제시된 훈련 기준의 표준 훈련 시간이나 과정평가형 자격 등 NCS 기반 자격의 종목별 자격 구조에서 제시하는 훈련 시간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학교는 전공 실무 과목의 학습 영역(NCS 능력단위)과 성취기준(NCS 수행준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습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가. 공통 사항

-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학점은 192학점이며 교과(군)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288시간)으로 편성한다.
- 나)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다)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학점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 (1) 학생이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 (2)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수학1, 2와 공통영어1, 2를 기본수학1, 2와 기본영어1, 2로 대체하여 이수하도록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4)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마) 학교는 학생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고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하는 학점을 적정하게 편성한다.
- 바) 학교는 학생의 필요와 학업 부담을 고려하여 교과(군) 총 이수 학점을 초과 이수하는 학점이 적정화되도록 하며,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한하여,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의 과목에 한하여 초과 이수할 수 있다.
- 사)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아) 학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 선택 과목 이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되,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 (1)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2)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

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3) 학교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진 학교 밖 교육을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4)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 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자)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의 진로 및 적성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차) 학교는 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 취득을 인정한다.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여 설정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
- 타) 학교는 학교급 전환 시기에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 교육을 편성·운영한다.
- (1) 학교는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위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연계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2) 졸업을 앞둔 시기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대학 생활에 대한 이해, 대학 선이수 과목, 사회생활 안내와 적응 활동 등을 운영한다.
- 파)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필요시 특수교육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학점은 192학점이며 교과(군)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288시간)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나)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학점은 고등학교 3년 간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총 이수 학점인 192학점은 교과(군) 174학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18학점(288시간)을 합한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1학점 수업량이 16회이므로 18(학점)×16(회)=288시간으로 산정된 것이다.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

학교는 3년간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과목 이수가 편중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공통 과목 및 선택 과목을 언제 이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이 진로에 따라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이 3년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때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학생들이 차기 학년의 학기 단위 과목을 선택하기 이전에 과목 선택 안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대상 연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다)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 진로·학업 설계 지도와 연계한 선택 과목 정보 안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기반으로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학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적성에 맞는 다양한 선택 과목 종류와 정보를 제공하고 과목과 관련된 진로, 과목의 내용, 수업 및 평가 방법,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상담할 필요가 있다.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학점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 (1) 학생이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 (2)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수학1, 2와 공통영어1, 2를 기본수학1, 2와 기본영어1, 2로 대체하여 이수하도록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4)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학기 단위 과목 이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는 학생이 모든 과목을 학기 단위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해야 한다. 즉, 학생은 이수하는 과목을 한 학기 내에 이수해야 한다. 다만, 전문 교과 중 전공 실무 과목은 능력 단위 기준으로 평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의 능력 단위를 다음 학기에 이어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최대 2학기에 걸쳐 편성·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면서 동일한 과목을 학교 내 정규 시간 이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이수 등 이수 형태를 달리하여 중복 수강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이수 순서

공통 과목은 각 교과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 보장을 위한 과목이므로 공통 과목은 선택 과목 이수 이전에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초 영역에 편제되어 있어서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 내 역사 관련 선택 과목과 순서 상관없이 편성·운영할 수 있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가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에 편제되어 있어 공통 과목인 한국사를 먼저 편성한 후 역사 관련 선택 과목(‘세계사’, ‘동아시아 역사 기행’ 등)을 편성한다.

● 공통 과목의 대체 과목 허용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학과 영어의 경우 학생별 상황과 학업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 과목의 대체 이수가 가능하도록 ‘기본수학1, 2’, ‘기본영어1, 2’를 편제하였다.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공통 과목의 대체 과목으로서 기본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본수학1’은 ‘공통수학1’을, ‘기본수학2’는 ‘공통수학2’를 각각 대체하므로 ‘기본수학1’과 ‘공통수학1’을 모두 이수할 수 없고, ‘기본수학2’와 ‘공통수학2’를 모두 이수할 수는 없다.

● 위계성이 있는 선택 과목의 편성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위 학교의 실정 및 학생 요구, 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은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위계성이 명확한 과목은 대체로 I 과 II 로 표기하고 있다. 다만, 선택 과목을 편성하는 경우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는 데에 무리가 없도록 보통 교과와 관련 선택 과목을 먼저 이수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학교는 학생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깊이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하는 학점을 적정하게 편성한다.

● 학기당 이수 학점 수의 적정화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진로·적성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여 깊이 있게 학습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학점 이수가 특정 학기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편성한다.

바) 학교는 학생의 필요와 학업 부담을 고려하여 교과(군) 총 이수 학점을 초과 이수하는 학점이 적정화되도록 하며,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한하여,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와 과목에 한하여 초과 이수할 수 있다.

● 교과 총 이수 학점의 초과 이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과(군) 총 이수 학점을 174학점으로 적정화 한 것은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교과(군) 총 이수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

다. 특히 교과 이수 학점이 17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총 이수 학점이 초과 학점의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학교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교과의 과목에 한하여 초과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공 분야의 진로 및 산업계 수요에 따른 전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교과의 과목에 한하여 초과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 과목 위주로 교육 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다.

다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과 함께 보통 교과(진로 선택 과목)로 편성된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 전문 교과 과목에 한하여 초과 이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예외로 하여 보통 교과 초과 이수를 허용한다.

사)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학생의 요구에 따른 선택 과목 개설 시 유의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이를 개설해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 개설 가능한 과목을 파악할 때에는 현재의 지도 교사, 시설 여건으로 개설 가능한 과목만이 아니라 외부의 지원을 받아 개설 가능한 과목도 적극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개인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 아) 학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 선택 과목 이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
되,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 (1)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
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2)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
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3)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기관에서 이루어진 학교 밖 교육을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4)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
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다른 학교에서의 선택 과목 이수 인정

학교는 일정 규모의 학생이 선택 과목 개설을 요청할 경우 시·도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 해당 과목을 개설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교원 수급, 학교 시설
및 여건 등의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어
려운 경우 학교는 학교 간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그 과목을 개설한 인근 학교에
서의 과목 이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때 학교 간 학사 일정 조정 등을 통해
가급적 정규 수업 시간 내로 편성·운영하여 학생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서 및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외의 새로운 과목의 개설 절차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고시 외 과목)을 개설
하고자 할 경우 시·도 교육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새로운 과목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과 성격, 목표, 내용 등이 다른 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도 교육감의 지침에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체계에 준하여 과목 개
설의 필요성, 해당 교과(군), 선택 과목의 구분, 성취기준, 교육과정 편성안, 지도
교사 확보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소
속 시·도 교육감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 ‘학교 밖 교육’의 의미와 이수 인정

학교 밖 교육은 학생이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수강을 희망한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학교 내 개설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학교 밖 교육을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일과 시간 내·외,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한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교육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정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은 학교 밖 교육 운영 공통 지침 및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대학과목 선이수제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

학교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과목 선이수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대학과목 선이수제는 대학에서 배울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배운 뒤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국내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이 공동 AP(Advanced Placement)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과학계열 고등학교(영재학교 포함)를 중심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한 경우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의 AP(Advanced Placement)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의 과목을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 과목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이러한 과목을 편성·운영할 경우,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통 교과, 전문 교과 과목 등과의 내용 유사성, 중복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생 입장에서 내용이 유사한 과목을 이수하거나, 중복 이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점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학점(시수)을 특정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운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3가지 영역을 모든 학년, 모든 학기에 동일하게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년별, 학기별로 특정 영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로와 연계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차) 학교는 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 취득을 인정한다.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여 설정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수강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 취득을 인정한다. 다만, 학교는 학생의 학점 취득을 인정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등 교육부장관이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지도를 실시한다.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점 취득을 위해 이수 기준이 적용되고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가 되어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는 과

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예방 지도와 보충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방 지도는 미도달 예상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실시하는 학습 관리와 지원에 초점을 둔다. 수업 중 지도나 방과 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을 예방 지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기 말에 미이수 과목이 있는 학생은 보충 지도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보충 지도는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보충 학습, 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단,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 설정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와 교과 협의회를 통해 선정한다.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에는 교과별 담당 교사와 특수교사가 협의하여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 타) 학교는 학교급 전환 시기에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 교육을 편성·운영한다.
- (1) 학교는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위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연계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2) 졸업을 앞둔 시기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대학 생활에 대한 이해, 대학 선이수 과목, 사회생활 안내와 적응 활동 등을 운영한다.

●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위한 진로연계교육 편성·운영

학교급이 전환되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과 졸업 직전인 3학년 2학기에는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위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연계교육을 편성·운영한다. 진로연계교육은 학생이 상급 학교나 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학교생활 적응과 교과 학습의 연계,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및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게 되므로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감을 갖도록 구체적인 진로·학업 설계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

하여 학교는 학교급 전환 시기에 이루어지는 진로연계교육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는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을 운영한다. 이때 대학 생활에 대한 이해, 사회 생활 안내 및 적응 활동 등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선이수 과목을 개설하여 대학에서 배울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파)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필요시 특수교육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 교과 과목 개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 교과’의 과목 개설 관련 지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으로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지침이다. 특수교육 전문 교과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직업, 생활 적응 및 기초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하는 모든 교육 배치 환경에서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특수교육 전문 교과는 직업·생활 교과(군) 총 14개 과목과 이료(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만 편성·운영) 교과(군) 총 10개 과목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	다) 전문 교과Ⅲ				
	교과(군)	과목			
	직업	직업준비 정보처리 외식서비스	안정된 직업생활 농생명 직업현장실습	기초작업기술 I 사무지원 직업과 자립	기초작업기술 II 대인서비스
이료 (시각장애학교)	해부·생리 전기치료 진단	병리 한방 이료실기실습	이료보건 침구	안마·마사지·지압 이료임상	
① 전문 교과Ⅲ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2022 개정 교육 과정	5) 특수교육 전문 교과				
	교과(군)	과목			
	직업·생활	직업준비 정보처리 외식서비스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안정된 직업생활 농생명 직업현장실습 농인의 생활과 문화	기초작업기술 I 사무지원 직업과 자립	기초작업기술 II 대인서비스 사회적응
이료 (시각장애학교)	해부·생리 전기치료 진단	병리 한방 이료실기실습	이료보건 침구	안마·마사지·지압 이료임상	
• 특수교육 전문 교과 과목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적성과 진로설계에 적합한 특수교육 전문 교과 과목을 개설할 경우, 과목의 성격에 따라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특수교육 전문 교과 과목 개설 여부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논의하며, 과목 개설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 내부 규정에 제시한다. 특수교육 전문 교과 과목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나. 일반 고등학교

- 가) 교과(군) 174학점 중 필수 이수 학점은 84학점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 수를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 다) 학교가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라)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 마) 학교는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기 위해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 이수 학점의 30% 이상을 해당 교과(군)의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권장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바) 학교는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하거나 직업 위탁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점 배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가) 교과(군) 174학점 중 필수 이수 학점은 84학점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 수를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일반 고등학교의 교과 필수 이수 학점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에서 필수 이수 학점은 84학점이나 학생의 진로·적성, 발달 수준에 따른 탄력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필요한 경우 학생별로 필수 이수 학점을 다르게 편성할 수 있다. 즉, 학교는 기초학력 보충 교육, 대안 교육,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별로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을 감함으로써 필수 이수 학점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때, 학교가 위와 같이 학생별로 필수 이수 학점을 다르게 편성할 경우 학생 선정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문 교과 과목 개설

일반 고등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중심으로 편성한다. 단, 학교의 여건, 학생의 요구 등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전문 교과를 개설하는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며, 해당 전문 교과 과목의 성격 및 목표를 토대로 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 학교가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제2외국어 과목 개설

외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 지침에 따라 제2외국어 과목을 복수로 개설하여 학생의 진로 및 특성을 고려하고 외국어 과목 선택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라)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외의 새로운 과목 개설

학교가 필요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외의 새로운 과목(고시 외 과목)을 개설할 경우 개설할 과목의 성격에 따라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과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이면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고시 외 과목의 기본 학점 및 증감 범위는 보통 교과(군)의 교과(군)에 따른 기본 학점 및 증감 범위를 준용한다.

마) 학교는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기 위해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 이수 학점의 30% 이상을 해당 교과(군)의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권장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교과 중점(교과 특성화) 학교의 편성·운영

교과 중점(교과 특성화) 학교는 예술, 체육, 과학, 사회, 정보 등과 같은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자율 이수 학점(90학점)의 30% 이상(27학점 이상)을 해당 교과(군)의 과목으로 집중 편성·운영을 권장한다.

바) 학교는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하거나 직업 위탁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점 배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직업에 관한 학과의 설치 및 직업 위탁 과정 운영

일반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산업수요 및 직업을 고려하여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점 배당 기준을 비롯하여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즉,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을 위해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편성·운영 기준’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이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 위탁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 가) 교과(군) 174학점 중 필수 이수 학점은 75학점으로 하고, 자율 이수 학점 중 68학점 이상을 특수 목적 고등학교 전공 관련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 나)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다) 학교는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 라)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 가) 교과(군) 174학점 중 필수 이수 학점은 75학점으로 하고, 자율 이수 학점 중 68학점 이상을 특수 목적 고등학교 전공 관련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필수 이수 학점과 전공 관련 선택 과목의 편성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의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군)에서 각각 8학점, 한국사에서 6학점, 과학 교과(군)에서 10학점, 체육 교과(군)에서 10학점, 예술 교과(군)에서 5학점,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군)에서 12학점이다. 보통 교과의 총 필수 이수 학점은 75학점으로 이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보통 교과 필수 이수 학점인 85학점보다 축소된 것이다.

또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는 해당 계열의 전문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특수 목적 고등학교 전공 관련 선택 과목을 68학점 이상 편성·운영해야 한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전공 관련 전문 교과 1의 필수 이수 학점인 72학점보다 줄어든 것이다. 한편 특수 목적 고등학교 전공 관련 선택 과목을 68학점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는 해당 계열의 과목에서 68학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유사 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계열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 준용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할 수 있다. 이때,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이전에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학교는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 전문 교과 과목의 선택 과목 개설

학교가 필요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주로 운영하는 전문 교과를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이때 과목의 성격에 따라 해당 계열의 전문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전공 관련 교과인 경우 특수 목적 고등학교 전공 관련 선택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 전공 관련 선택 과목으로 편성할 경우 시·도 교육감의 지침을 따른다.

라)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외의 새로운 과목의 개설

학교가 필요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외의 새로운 과목(고시 외 과목)을 개설할 경우 개설할 과목의 성격에 따라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과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이면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또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때, 전공 관련 이외의 과목은 ‘고등학교 학점 배당 기준 <표5>’의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전공 관련 과목은 ‘고등학교 학점 배당 기준 <표6>’의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학교는 시·도 교육감에게 고시 외 과목 승인 신청을 할 때 개설 과목의 성격에 적합한 과목 유형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고시 외 과목을 승인할 때,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해당 계열과 관련된 과목인지 검토해야 한다.

제1부

Ⅰ

Ⅱ

제2부

Ⅰ

Ⅱ

Ⅲ

Ⅳ

부
록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1)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보통 교과의 필수 이수 학점은 64학점, 전문 교과의 필수 이수 학점은 80학점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2) 학교는 두 개 이상의 교과(군)의 과목을 선택하여 전문 교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학교는 모든 교과(군)에서 요구되는 전문 공통 과목을 학교 여건과 학생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전공 실무 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성취기준에 적합하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내용 영역인 능력단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나) 학교는 학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부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다)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와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마)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전공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바)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 (1)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 실습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교와 산업계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현장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 (2) 현장 실습은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사) 학교는 실습 관련 과목을 지도할 경우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 아)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인성 계발, 취업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자)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는 교과(군)의 교육과정은 유사한 교과(군)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교과(군)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차)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전공 실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한 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즉,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지역 및 관련 산업 기반과 인력 수요의 분석, 학교 및 학과별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토대로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함양하여 취업 역량을 높이고, 졸업 이후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업기초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공통의 역량을 의미하며 직무능력은 해당 분야와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학교는 보통 교과뿐만 아니라 전문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이 함양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보통 교과(군)의 필수 이수 학점은 64학점, 전문 교과(군)의 필수 이수 학점은 80학점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필수 이수 학점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174학점이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보통 교과(군)의 경우 필수 이수 학점은 64학점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 2학점 감소하였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포함하여 보통 교과(군)를 64학점 이상 편성해야 한다. 전문 교과(군)의 필수 이수 학점은 80학점이며 여기에는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군)의 선택 과목을 전문 교과(군)로 교체하여 편성한 것도 포함한다. 다만, 학교는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군)의 이수 학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구성해야 한다. 또한 자율 이수 학점 30학점은 학생의 적성이나 진로, 산업계 수요, 그리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등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한다.

한편,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적성, 학습수준에 따른 탄력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학생별로 필수 이수 학점을 다르게 편성할 수 있다. 즉, 학교는 기초학력 보충교육, 예술·체육·대안 교육이 필요한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별로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을 감함으로써 필수 이수 학점(보통 교과 64학점)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때, 학교가 위와 같이 학생별로 필수 이수 학점을 다르게 편성할 경우 학생 선정 기준, 방법, 절차 등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 (2) 학교는 두 개 이상의 교과(군)의 과목을 선택하여 전문 교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학교는 모든 교과(군)에서 요구되는 전문 공통 과목을 학교 여건과 학생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전공 실무 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성취기준에 적합하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내용 영역인 능력단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두 개 이상 교과(군)의 전문 교과 편성·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 체계에 따라 17개 교과(군)로 재구조화되었으며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는 학과별로 특정 교과(군)에만 국한하여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인력 양성 유형 등에 따라 다른 교과(군)의 전공 일반 과목이나 전공 실무 과목을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전문 공통 과목 편성·운영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공적인 직업 생활’만 전문 공통 과목이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노동과 산업 안전 보건의 중요성 및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고려하여 ‘노동 인권과 산업 안전 보건’과 ‘디지털과 직업 생활’ 과목을 신설하였다. 전문 공통 과목은 학교와 학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모든 교과(군)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전공 실무 과목의 능력단위 기준 평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전문 교과 성취평가제와 연계하여 학습자의 성취수준을 평가하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산업 현장의 요구를 고교 직업교육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경험한 학습 성과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활용되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유지하여 전공 실무 과목은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나) 학교는 학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부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세부 전공, 부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 개설 가능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과별 특성, 급변하는 산업 현장과 학생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세부 전공 과정은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을 기반으로 연계된 자격이나 직무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과정으로 통상 운영하던 전공 코스제를 의미한다.

부전공 과정은 다기능 창의·융합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소속 학과 외 타 학과 전공 과정의 과목을 일정 기준 이상(24학점 이상) 선택·수강하여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 간 융합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별도의 융복합 학과로의 개편 없이도 소속 학과의 전공 과정과 타 학과 전공 과정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자격 취득 과정은 학과의 인력 양성 유형과 연계된 자격(과정형 자격과 검정형 자격을 모두 포함)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자격에서 요구하는 과목 및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표-14>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문 교과(군) 기준학과 재구조화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과(군)	기준 학과	대분류	중분류
경영·금융	경영사무과	02 경영·회계·사무	01 기획사무 02 총무·인사
	세무회계과	02 경영·회계·사무	03 재무·회계
	유통과	02 경영·회계·사무	04 생산·품질관리
	금융정보과	03 금융·보험	01 금융 02 보험
	마케팅과	10 영업판매	03 판매
보건·복지	보육과	07 사회복지·종교	03 보육
	복지과	07 사회복지·종교	01 사회복지
	간호과	06 보건·의료	-
문화·	문화콘텐츠과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03 문화콘텐츠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과(군)	기준 학과	대분류	중분류
예술· 디자인· 방송	디자인과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02 디자인
	공예과	22 인쇄·목재·가구·공예	02 공예
	방송과	20 정보통신	03 방송기술
미용	미용과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01 미·미용
관광· 레저	관광과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03 관광·레저
	레저과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03 관광·레저
식품· 조리	조리과	13 음식서비스	01 식음료조리·서비스
	식음료과	13 음식서비스	01 식음료조리·서비스
	식품가공과	21 식품가공	01 식품가공
	제과제빵과	21 식품가공	02 제과·제빵·떡제조
건축· 토목	건축과	14 건설	03 건축
	건축인테리어과	14 건설	03 건축
	토목과	14 건설	02 토목
	공간 정보과	14 건설	03 건축
	스마트시티과	14 건설	06 도시·교통
기계	기계과	15 기계	01 기계설계 02 기계가공 03 기계조립·관리 05 기계장치설치 10 금형
	공조산업설비과	15 기계	05 기계장치설치
	자동차과	15 기계	06 자동차
	조선과	15 기계	08 조선
	항공과	15 기계	09 항공기제작
재료	금속 재료과	16 재료	01 금속재료
	세라믹과	16 재료	02 세라믹재료
화학 공업	화학공업과	17 화학·바이오	01 화학·바이오공통 02 석유·기초화학물제조 04 플라스틱·고무
	바이오화학공업과	17 화학·바이오	01 화학·바이오공통 05 바이오
	에너지화학공업과	17 화학·바이오	01 화학·바이오공통 02 석유·기초화학물 03 정밀화학
섬유· 의류	섬유과	18 섬유·의복	01 섬유제조
	의류과	18 섬유·의복	02 패션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과(군)	기준 학과	대분류	중분류
전기·전자	전기과	19 전기·전자	01 전기
	전자과	19 전기·전자	02 전자기기일반 03 전자기기개발
정보·통신	통신과	20 정보통신	02 통신기술
	정보컴퓨터과	20 정보통신	01 정보기술
	소프트웨어과	20 정보통신	01 정보기술
환경·안전·소방	환경과	23 환경·에너지·안전	01 산업환경 02 환경보건 03 자연환경
	산업안전과	23 환경·에너지·안전	06 산업안전
	소방과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2 소방방재
농림·축산	농업과	24 농림어업	01 농업
	원예과	24 농림어업	01 농업
	산림자원과	24 농림어업	03 임업
	조경과	14 건설	05 조경
	동물자원과	24 농림어업	02 축산
	농업기계과	15 기계	03 기계조립·관리 05 기계장치설치
	농업토목과	14 건설	02 토목
수산·해운	해양생산과	24 농림어업	04 수산
	수산양식과	24 농림어업	04 수산
	해양레저과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03 관광·레저
		24 농림어업	04 수산
	항해과	09 운전·운송	03 선박운전·운송
	기관과	09 운전·운송	03 선박운전·운송
융복합·지식재산	스마트공장과	15 기계	11.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발명특허과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1 법률

● 기준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의 재구조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는 교과(군) 구조의 변화와 연계하여 신산업 분야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기술을 반영하여 기준학과를 재구조화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의 고졸 인력 수요, 직무, 자격 등과 교과(군)의 매칭, 디지털

기술 등에 의한 새로운 산업과 융·복합기술 분야에서 고졸 수준의 인력에 대한 적정한 직무와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구조화하였다. 그리고 산업 및 학과 개편 등의 경향을 반영하여 유사 기준학과들을 통합하였으며, AI와 디지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신산업 및 신기술, 융복합 분야 관련 과를 신설하고, 점차 수요가 줄어드는 산업 분야의 학과를 폐지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47개 기준학과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8개로 11개가 증가하였다. 소프트웨어, 바이오 화학공업, 에너지 화학공업, 소방,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발명특허 등 신산업 분야의 기준학과들을 신설하였고, 조리과, 식음료과, 관광과, 레저산업과 등 통합되어 있던 기준학과들을 분야별로 분리하였다.

〈표-15〉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문 교과 교과(군) 및 기준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예시)

교과(군)	기준 학과	인력 양성 유형
경영·금융	경영사무과	경영 지원 사무원, 총무 사무원, 비서
	세무회계과	회계 사무원, 경리 사무원, 세무 사무원
	유통과	물류 관리 사무원, 생산 관련 사무원, 운송 사무원,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무역 사무원, 원산지 실무사
	금융정보과	금융 사무원, 증권 중개인, 보험 설계사, 보험 사무원
	마케팅과	상품 판매원, 전화 고객 상담원, 매장 판매원, 안내 및 접수 사무원, 인터넷 판매원
보건·복지	보육과	보육 서비스 종사자
	복지과	복지 서비스 종사자
	간호과	간호조무사, 병원 코디네이터, 병원 보험 심사 청구사
문화·예술 · 디자인· 방송	문화콘텐츠과	영화 촬영 기사, 음향 녹음 기사, 광고 디자이너, 게임 디자이너, 게임 개발자, 컴퓨터 게임 시나리오 작가, 애니메이터, 만화가, 웹툰 작가, 캐릭터 디자이너, 영상 디자이너, 웹·앱 디자이너, 앱 개발자
	디자인과	시각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컬러리스트, 편집 디자이너, 출판물 기획 전문가
	공예과	도자기 제조원, 목재 가공 관련 조직원, 가구 제조 및 수리원, 보석 디자이너,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방송과	비디오 저널리스트(VJ), 방송 연출가, 방송 편집 기사, 촬영 기사, 녹음 기사
미용	미용과	미용사(헤어 디자이너), 피부 미용사(피부 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톱 미용사(네일 아티스트)
관광·레저	관광과	면세점 판매원, 숙박 외식接客원, 여행 사무원, 국내외 여행 안내원, 미팅·이벤트 플래너
	레저과	카지노 딜러, 레저 시설接客원
식품·조리	조리과	한식·양식·중식·일식 조리사 및 주방장

교과(군)	기준 학과	인력 양성 유형
	식음료과	바리스타, 제빵원 및 제과원(식음료), 바텐더, 푸드 스타일리스트
	식품가공과	육류·어패류 및 낙농 제품 제조원, 식품 등급원, 정육원 및 도축원, 건강 기능 식품 제조원, 음료 제조 관련 제품 제조원, 과실 및 채소 관련 제품 제조원, 김치 및 밑반찬 제조원, 떡 제조원
	제과제빵과	제빵원 및 제과원
건축·토목	건축과	건축 시공 기초 기술자, 목수, 전통 건축 기능원, 거푸집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비계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등
	건축인테리어과	건축 설계 기초 기술자, 건축 제도사, 건축 도장공
	토목과	토목 제도사, 토목 설계 기초 기술자, 토목 시공 기초 기술자, 토공 포장사, 철도 토목원, 건설 재료 시험원
	공간 정보과	지적 및 측량 기초 기술자, 공간 정보 데이터 분석원, 공간 정보 영상 처리원, 항공 사진 측량 기술자, 도화사, 지도 제작사
	스마트시티과	도시 계획·설계 기초 기술자, 교통 계획 설계 기초 기술자, 스마트 도시 설계 기초 기술자
기계	기계과	기계 설계원, 부품 가공원, 스마트 팩토리 생산 관리원, 스마트 팩토리 품질 관리원, 금형원, 기계 설치 및 정비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용
	공조산업설비과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용, 냉동·냉장·공조기 설치원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에너지(보일러) 관리원, 냉난방 관련 설계원, 용접 로봇 조작용, 용접원
	자동차과	자동조립 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용, 자동차 조립원, 자동차 부품 조립원, 자동차 정비원, 자동차 제작원, 자동차 검사원, 자동차 관리원
	조선과	선박선체설계사, 선박선체건조사, 선박 의장사
	항공과	항공기 정비원, 항공기 관리원, 항공기 제작원, 드론 조종사, 드론 정비사, 항공 우주 공학 기술자
재료	금속 재료과	금속·재료 공학 연구원 및 기술자, 금속 및 재료 공학 시험원, 금속 재료 제조원, 주조원 및 주조기 조작용, 단조원 및 금속 가공기계 조작용, 금속 열처리 및 금속 가공기계 조작용, 도금·도장 및 도금·도장기계 조작용
	세라믹과	금속·재료 공학 연구원 및 기술자, 금속 및 재료 공학 시험원, 비금속광물 가공 관련 조작용, 광학제품 생산원, 비금속광물 가공 생산원, 유리 및 유리제품 생산원, 도자기제품 생산원, 요업·세라믹 공학 기술자, 탄소 재료 제조 기술자, 탄소 재료 시험 분석원, 탄소 재료 연구원, 유리·유리제품 생산기계 조작용, 유리제품 제조원, 유리 제조 및 가공기 조작용
화학 공업	화학공업과	화학 분석 기술자, 화학 제품 제조 기술자, 고분자 화합물 제조 기술자, 플라스틱 성형 가공 기술자, 위험물 관리 기술자, 화합 물질 취급 관리 기술자, 화학 공정 운전 및 관리 기술자, 고압 가스 취급 관리 기술자

교과(군)	기준 학과	인력 양성 유형
	바이오화학공업과	화장품 제조 기술자,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 기술자, 의약품 제조 기술자, 화학 부서관
	에너지화학공업과	화력 발전 설비 관리 기술자, 온실가스 배출원 설비 관리 기술자, 태양광 설비 성능 관리 기술자, 바이오매스 생산 기술자
섬유·의류	섬유과	섬유시험검사원, 품질관리사무원, 섬유제조 기계 조작용(방직·방사·사가공·부직포), 직조기 편직기 자수기 조작용, 염색기·날염기·가공 장비 조작용, 염색시험원, 색상개발원, 섬유 디자이너, 디지털 장비 조작용
	의류과	패션 디자이너, 니트 디자이너, 한복 디자이너, 소품 디자이너, 텍스타일 디자이너, 컬러리스트, 패션 스타일리스트, 무대 의상 디자이너, 생산 관리자, 패턴사(CAD), 재단사, 재봉사, 의류 샘플사, 의류 제품 검사원, 패션 머천다이저, 습 마스터, 비주얼 머천 다이저
전기·전자	전기과	발전 장치 조작용, 송·변전 배전 설비 조작용, 전기 기기 제작 및 유지 보수원, 전기·전자 설비 유지 보수원, 내선·외선 공사 시공원, 자동 제어 시스템 제작 및 유지 보수원, 전기 철도 시공 및 유지 보수원
	전자과	전자 제품/부품 생산 및 유지 보수원,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 보수원, 정보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 보수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및 장비 유지 보수원, 로봇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 보수원, 의료용 전자 기기 생산 및 유지 보수원, 3D 프린터 생산 및 유지 보수원
정보·통신	통신과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네트워크 엔지니어, 통신/방송 및 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정보컴퓨터과	임베디드 SW 개발자(초급), IT 시스템 운영자, SW 테스터,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시스템 기술 지원 전문가, 웹 엔지니어, 정보 시스템 운영자
	소프트웨어과	컴퓨터 보안 전문가, 스마트폰 앱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빅데이터 전문가, 사물 인터넷(IoT) 전문가, 인공지능 엔지니어
환경·안전·소방	환경과	대기 환경 기술자, 수질 환경 기술자, 폐기물 처리 기술자, 자원 순환 기술자, 경수 시설 운영자, 하수 처리 시설 운영자, 소각 시설 조작용, 환경 컨설턴트, 사회 환경 운동가, 탄소 배출 관리자, 생태계 복원 기술자
	산업안전과	산업 안전원, 위험 관리원, 안전 관리원, 검침 및 점검원, 안전 관리 사무원, 전기 안전 관리원, 건설 안전 관리원, 가스 시설 안전 관리원, 가스관로 안전 관리원, 가스 안전 교육 사무원, 가스 계기 검침원, 가스 안전 점검원, 산업 안전 지도사
	소방과	소방 설계 기술자, 소방 시공 기술자, 소방 공학 시험원, 소방 시설 관리자, 소방 안전 관리자, 소방 감리사, 소방관, 소방 시설 기술자, 위험물 운송원, 위험물 안전 관리자
농림·축산	농업과	농업경영컨설턴트, 스마트팜컨설턴트, 농림어업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 공학 시험원, 여행 상품 개발자, 제품·광고 영업원,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화학 제품 생산 기계 조작용(고무·플라스틱 제외), 제분·도정 기계 조작용,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교과(군)	기준 학과	인력 양성 유형
		곡식 작물 재배원, 채소·특용 작물 재배원, 원예 작물 재배원, 농림어업 단순 종사원
	원예과	농업경영컨설턴트, 스마트팜컨설턴트, 농림어업 시험원, 식품·담배 등급원, 공예원(화훼장식가), 채소·특용 작물 재배원, 과수 작물 재배원, 원예 작물 재배원, 조경원, 농림어업 단순 종사원
	산림자원과	농업경영컨설턴트, 농림어업 시험원,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목재 가공 기계 조작용, 펄프·종이 제조 장치 조작용, 종이 제품 생산 기계 조작용, 기타 목재·종이 기계 조작용, 가구 제조·수리원, 가구 조립원, 목제품 제조원, 조림·산림 경영인 및 벌목원, 임산물 채취 및 기타 임업 종사원, 농림어업 단순 종사원
	조경과	농업경영컨설턴트, 농림어업 시험원, 조경 기술자, 제도사,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조경원, 농림어업 단순 종사원
	동물자원과	농업경영컨설턴트, 농림어업 시험원, 식품 공학 시험원, 스포츠 강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 화학 제품 생산 기계 조작용(고무·플라스틱 제외), 식품·담배 등급원, 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 기계 조작용, 낙농 종사원, 가축 사육 종사원, 기타 사육 종사원, 농림어업 단순 종사원
	농업기계과	농업경영컨설턴트, 스마트팜컨설턴트, 농림어업 시험원, 물품 이동 장비 조작용,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물품 이동 장비 설치·정비원, 농업용 및 기타 기계 장비 설치·정비원, 일반 기계 조립원, 금속 기계 부품 조립원, 농림어업 단순 종사원
	농업토목과	농업경영컨설턴트, 스마트팜컨설턴트, 농림어업 시험원, 토목 공학 기술자, 측량·지리 정보 전문가, 건설 자재 시험원, 제도사, 부사관, 철근공, 콘크리트공, 기타 채굴·토목 종사원, 건설·광업 단순 종사원, 농림어업 단순 종사원
수산·해운	해양생산과	어선 항해사·어로장·선장, 어업 정보통신사, 해양 자원 조사원, 국제 옵서버, 어업 지도 공무원, 해양 경찰
	수산양식과	양식 기술 관리자, 양식 경영자, 관상어 사육 관리사, 수산 질병 관리사, 유통 관리사, 자원 관리사, 수질 관리사
	해양레저과	수상 레저 기구 조종사, 마리나 관리원, 낚시 어선 선장, 스쿠버 강사, 산업 잠수사
	항해과	선박 항해사·선장, 도선사, 해상 교통 관제사, 해양경찰, 검량사, 검수사, 해무 감독, 해군 부사관
	기관과	선박 기관사·기관장, 해양 경찰, 선박 검사관, 공무 감독, 해군 부사관
융복합·지식재산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공장 설계·설치원, 스마트 공장 운영 관리원
	발명특허과	지식 재산 사무원, 특허 정보 검색원, 특허 정보 분석원, 특허 출원 실무원, 특허 도면 실무원, 지식 재산 번역 실무원

다) 전문 교과와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와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전문 교과와 기초가 되는 과목의 보통 교과 이수 인정

전문 교과와 기초가 되는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을 의미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전문 교과와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해당 전문 교과와 선택 과목을 이와 관련되는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는 전문 교과와 '성공적인 직업 생활' 등 전문 공통 과목과 '창업 일반', '기계 일반' 등의 전공 일반 과목을 보통 교과와 기술·가정/정보 교과(군) 선택 과목(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는 전문 교과 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전문 교과와 기초가 되는 과목을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하는 경우, 과목의 학점 수 및 성적 산출 방식은 보통 교과 선택 과목의 학점 수 및 성적 산출 방식에 따른다. 둘째, 전문 교과와 기초가 되는 과목은 대체되는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과 성격이 유사해야 한다. 한편, 여기에서 관련되는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 모두를 의미한다.

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와 과목을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을 전문 교과 과목으로 교체 편성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은 전문 교과와 과목으로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는 해당 분야의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가정/정보 교과와 '기술·가정', '정보', '로봇과 공학세계', '생활과학 탐구', '창의 공학 설계', '지식 재산 일반', '생애 설계와 자립',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등의 선택 과목을 전문 교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 교과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보통 교과와 '영상 제작의 이해', '드로잉' 등과 같은 진로 선택 과목들도 전문 교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마)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와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전공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문 교과 과목 내용 구성의 유연성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와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공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두되 학생 및 학교의 요구, 인력 양성 유형, 교육과정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습 영역(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전공 실무 과목에 특정 NCS 능력단위를 추가할 경우에는 전공 실무 과목 명칭과 기존의 학습 영역(능력단위)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헤어 미용’ 전공 실무 과목에 ‘헤어 미용’ NCS의 능력단위 가운데 전공 실무 과목에 반영되지 않은 ‘쇼트 헤어 커트’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인력 양성 유형과 무관한 ‘서양조리’ NCS의 능력단위를 추가할 수는 없다.

둘째, 전공 실무 과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할 때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추가하려는 주제나 학습 내용이 NCS 능력단위에 해당해야 한다.

셋째, 전공 실무 과목의 학습 영역(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지역 여건이나 산업 수요, 학교의 교육 환경 등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선택한 학습 영역(능력단위)으로 해당 전공 실무 과목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경 시공’ 전공 실무 과목의 학습 영역(능력단위) 중 지역 여건이나 산업 수요에 따라 ‘조경 공무 관리’ 학습 영역(능력단위)을 제외할 수는 있지만, ‘실내 조경 공사’ 학습 영역(능력단위)만을 선택하여 ‘조경 시공’ 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외선 공사’ 전공 실무 과목의 학습 영역(능력단위) 가운데 학교의 여건 때문에 ‘공사 계획’ 학습 영역(능력단위)만을 선택하여 ‘외선 공사’ 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 이는 선택된 일부 학습 영역(능력단위)만으로는 해당 전공 실무 과목의 목표를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넷째, 전공 실무 과목의 학습 영역(능력단위)별 학습모듈이 새로 개발되거나 수정된 경우 학교는 개선된 능력단위를 전공 실무 과목 학습 영역으로 반영하여 가르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 현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NCS 능력단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개선된 NCS 능력단위에 대한 NCS 학습모듈이 개선되었다면 학교에서는 최신의 NCS 학습모듈을 교과서로 채택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내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바)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 (1)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 실습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교와 산업계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현장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 (2) 현장 실습은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사) 학교는 실습 관련 과목을 지도할 경우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 현장 실습의 운영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학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 경험이 가능한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직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현장 실습 참여 의무를 두고 있지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참여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장 실습은 향후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실무 현장에서 실시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이며 현장 실습은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내 활동 유형에는 교내 현장 실습(산업 현장 전문가 학교 방문 교육 등), 교외 활동 유형에는 산업체 체험형 현장 실습, 연계교육형 현장 실습, 산업체 채용형 현장 실습으로 구분하고 있다.

산업체에서 채용을 연계한 현장 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는 현장 실습 참여

산업체와 공동으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와 산업체는 이를 토대로 현장 실습을 운영하고 해당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학교는 지역사회 기관(대한상공회의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문직업교육훈련기관 등) 등과 연계하여 현장 실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학교는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익 침해 및 산업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보호 장비(안전복, 안전화, 안전조끼 등) 등을 지원하는 한편, 현장 실습을 운영 중인 산업체 및 학생 현장 지도를 정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실습 관련 과목에서의 안전교육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밖 교육의 증가 등에 따라 실험·실습의 확대가 예상된다. 실험·실습과 관련된 교과 운영 시 학생들이 실습의 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비롯한 산업 안전 보건 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인성 계발, 취업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운영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의 진로와 경력 개발, 인성 계발 및 취업 역량 제고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학생의 수요에 맞추어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는 교과(군)의 교육과정은 유사한 교과(군)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교과(군)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새로운 교과(군)의 설치·운영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신산업의 발달, AI 등 디지털 전환 및 시대적 요구 등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은 새로운 교과(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유사한 교과(군)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학교가 새로운 교과(군)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전공 실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새로운 전공 실무 과목의 개설·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학교가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전공 실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인력양성 유형 등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교육에 필요한 능력단위를 선정하고, 이 능력단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전공 실무 과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새로운 전공 실무 과목의 개설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전공 실무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체계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편성·운영**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특화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단계에서 함양해야 할 기초소양과 직업기초능력을 갖추기 위해 보통 교과와 필수 이수 학점은 가급적 준수하도록 한다.

4. 특수한 학교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이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5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바) 자율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와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사)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아)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이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시·도교육감이 제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다. 국립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지만, 각 학교는 해당 학교 소재지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 기타 특수한 학교의 교육과정

- 다)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제7차 교육과정 적용 시기부터는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야간에 수업을 편성·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본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을 모두 편성·운영해야 한다. 다만 시간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단위 수업 시간을 5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 15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중학교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 및 교육방식, 학교 출석 수업 일수 등을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①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방송통신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5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② 학교 출석 수업 일수를 연간 20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 수업 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되어야 하지만,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자율학교, 특성화 중학교 등의 교육과정

바) 자율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와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설립 이념 및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하되, 별도의 관련 지침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다.

●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의하면 학교의 설립 위치나 여건에 따라 초·중, 중·고, 초·중·고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일정 정도 부여하였으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

● 교육과정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아)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선 연구 등을 위해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교육과정 질 관리

가. 국가 수준의 지원

- 1)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가) 교과별, 학년(군)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생의 학습 지원, 학력의 질 관리,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 등에 활용한다.
 - 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다) 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 2)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나. 교육청 수준의 지원

- 1)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 2)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가)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 나)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3)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나)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가. 국가 수준의 지원

- 1)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가) 교과별, 학년(군)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생의 학습 지원, 학력의 질 관리,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 등에 활용한다.
 - 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다) 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 2)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교육과정의 질 관리

국가는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학교 및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학업 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것이다.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 주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 지원, 학력의 질 관리,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 등 교육과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국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분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또한 국가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계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나. 교육청 수준의 지원

- 1)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 2)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가)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 나)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시·도 교육청은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교육과정을 세밀하게 분석·검토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교원·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필요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반영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한다.

기초 조사·연구 활동은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기관, 연수 기관, 교원 양성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 및 운영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명칭, 구성, 임기, 방법 등 위원회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도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교과별·학교급별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및 지침 작성 교육 중점 사항 설정 및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 위원은 초·중·고·특수학교 등 학교급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써 학교급별로 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나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균형 있는 연구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3)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나)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 지원

시·도 교육청은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질 관리 연구팀이나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 실정, 학생 실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설계될 수 있도록 지도·조언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위 학교에 대한 장학 활동을 통해 학교급별 교육 목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내용·방법과 평가가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며,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의 결과를 수업 개선과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 자체 계획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은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평가를 수렴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방법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지원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2. 학습자 맞춤형교육 강화

가. 국가 수준의 지원

- 1)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과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가)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별로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개발·보급한다.
 - 나) 교과목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2)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준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나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의 특성 및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학습 부진 학생, 느린 학습자, 다문화 가정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4)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 교육 평가 방법 및 도구 등의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나. 교육청 수준의 지원

- 1) 지역 및 학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 나) 통합운영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정비하고, 통합운영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 학교 밖 교육이 지역 및 학교의 여건,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한 학교 밖 교육 자원을 발굴·공유하고, 질 관리에 힘쓴다.
 - 라) 개별 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바)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2) 학생의 진로 및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 가) 학교급과 학생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진로 활동 및 학교급 간 연계 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나) 학교급 전환 시기 진로연계교육을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각 학교급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 증진 및 학교급 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다)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점을 기반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학교 컨설팅,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마)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 3) 학습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습 소외 및 교육 격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 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학교,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
 - 나) 모든 학생이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 학생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공공성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라)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을 포함하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그들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에 의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마)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바) 통합교육 실행 및 개선을 위해 교사 간 협력 지원,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자료 개발 및 보급, 관련 연수나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가. 국가 수준의 지원

- 1)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과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가)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별로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개발·보급한다.
 - 나) 교과목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2)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준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나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의 특성 및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학습 부진 학생, 느린 학습자, 다문화 가정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4)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 교육 평가 방법 및 도구 등의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는 평가

국가는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온라인 평가, 인공지능 기반 평가 등 평가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과 도구, 개인 맞춤형 피드백 강화 방안 등을 제공한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또는 직무 분석에 기초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신산업 및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현장 실무 교육 강화는 매우 중요하며 국가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이 더욱 필요해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시작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 현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능력을 산업별·수준별로 체계화하여 국가가 인증·고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AI, 디지털 역량 기술 등을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현장 실무 적응력을 향상하도록 하였다. 국가는 산업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도록 지원한다.

●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 지원

국가는 모든 학생이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학습 부진 학생, 느린 학습자, 다문화 가정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교원 배치, 학습 환경 마련, 학생별 상황 및 환경 여건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한다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학교 현장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 수단 등의 설치 및 개조, 필요한 훈련이나 연습 제공, 모든 학생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나 자료의 설계와 개발 및 보급, 시험 또는 평가 방법의 조정, 정보나 교수·학습 활동에의 접근 수단 다양화, 학생들이 교수·학습 및 평가 과정에의 참여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 공학 지원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다.

국가는 학교나 시도 교육청이 이러한 시설이나 도구, 자료,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과 비용을 지원한다.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이 학생의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법의 의도와 취지를 구현하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 참고)

나. 교육청 수준의 지원

- 1) 지역 및 학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 나) 통합운영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정비하고, 통합운영학교에 맞는 교육과

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 학교 밖 교육이 지역 및 학교의 여건,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한 학교 밖 교육 자원을 발굴·공유하고, 질 관리에 힘쓴다.
- 라) 개별 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바)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단위 학교 교과목 개설 지원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필요에 의해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 승인 신청 절차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에 제시해 주어야 한다. 과목 신설을 위한 신청 시기, 신청 양식, 심사 절차 및 결과 통보 시기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해당 신설 과목에 대비한 담당 교사 확보 및 교재 개발 계획, 교과 교육과정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지원해야 한다.

● 통합운영학교 운영 지원

통합운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근거하여 학교급이 다른 초·중·고등학교가 교육과정, 교직원, 행정 활동 및 예산, 시설·설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학교 운영 형태이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통합운영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정비하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교육적 필요에 따라 일부 또는 그 이상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학교 밖 교육 운영 지원

시·도 교육청은 학교가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의 개설·운영에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보유

한 지역사회 기관을 발굴하여 학교 밖 교육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하고, 학교로 안내하여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를 연결하며, 지역사회 기관을 관리(평가)·재심의 하는 등 학교 밖 자원을 운영·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2) 학생의 진로 및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 가) 학교급과 학생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진로 활동 및 학교급 간 연계 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나) 학교급 전환 시기 진로연계교육을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각 학교급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 증진 및 학교급 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다)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점을 기반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학교 컨설팅,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마)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 학교급 전환 시기 진로연계교육 운영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성장의 연속선 상에서 학교급 간 교과 내용 연계와 진로 설계, 학습 방법 및 생활 적응 등을 위한 진로연계교육을 도입하였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가 입학 초기 및 상급 학교(학년)로 진학하기 전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생활 적응 및 교과 학습의 연계,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 등 진로연계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 제작·보급, 교원 연수 및 학교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상급 학교 및 사회생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와 연계하는 등 진로연계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시·도 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지원

시·도 교육청은 학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등 단위 학교 상시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 및 학교 컨설팅,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원, 지역 대학 및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제2항에 의하면,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조성·정비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3) 학습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습 소외 및 교육 격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 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학교,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
 - 나) 모든 학생이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 학생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공공성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라)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을 포함하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그들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에 의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마)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바) 통합교육 실행 및 개선을 위해 교사 간 협력 지원,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자료 개발 및 보급, 관련 연수나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 교육 격차 완화 및 맞춤형 지원 체제 마련

농산어촌학교, 소규모 학교는 교육 시설·설비, 인적 자원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학교 간 인적·물적 자원 연계 지원, 복식 학급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학교가 맞춤형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모든 학생이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안내하는 등 학교가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마련하며 이에 대한 홍보 및 연수 활동 등을 병행해야 한다.

● 과목 이수 기회 제공 및 귀국자·다문화 가정 학생 배려

시·도 교육청은 전·입학, 편입학, 복학, 귀국 학생 등에게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 또는 고등학교 공통 과목의 이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단위 학교에서 학기 중 또는 별도의 이수 시기를 정하여 이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정 지역의 학교들을 연합하여 교과목을 개설·운영하거나, 공공성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의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귀국자, 다문화 가정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위 학교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특수한 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울 때에는 특정 학교에 특별 학급을 지정·설치하는 등 별도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학교는 학생들의 해외에서의 학습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학습 교재를 개발·활용하거나 학생의 능력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시·도 교육청은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나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각 학교에 별도의 과정을 설치하여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초 실태 조사를 통해 문학, 외국어, 과학, 체육, 예능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및 방과 후 교육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고,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확립한다.

● 통합교육 실행 및 개선 지원

시·도 교육청은 학교가 통합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공유된 책무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협력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통합교육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 특수교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학교 교육과정 수립 단계부터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수업방법과 평가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도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및 연수의 내용에는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 인식 및 이해 교육 외에 교육과정 조정, 학습보조기기 사용 등 교수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교육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통합교육 실행 및 개선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교원 연구회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통합교육 교육과정의 충실한 설계와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나 컨설팅을 제공하고, 통합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학교 및 기관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학교의 교육 환경 조성

가. 국가 수준의 지원

- 1)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를 바탕으로 교육 주체들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한다.
- 2)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3)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4)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함양을 지원한다.
- 5)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나. 교육청 수준의 지원

- 1)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 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나)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다)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이 가능하도록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라)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마)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 수급, 시설 확보, 유연한 학습 공간 조성,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 실습과 전문교과 실습이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2)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 3)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개발, 인정,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 4) 학교가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자유학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안내한다.
- 5)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시·도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 6)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가)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수·학습, 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나)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 교사제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7)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교수·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가)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원격수업 기반 구축,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나) 수업 설계·운영과 평가에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 및 도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와 기자재 확충을 지원한다.

가. 국가 수준의 지원

- 1)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를 바탕으로 교육 주체들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한다.
- 2)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3)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4)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체제 구축을

- 위해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함양을 지원한다.
- 5)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유기적 협력 지원

국가 차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개정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 교과 연구회 활동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 교과 교육과정 이해 및 교수·학습과 평가 운영 역량을 제고하는 현장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되고 지속적인 교육과정 인력풀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과 연구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대해 연구하는 총론 차원의 연구회,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 등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회 그리고 각 교과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회가 포함된다.

● 미래형 교수·학습 및 평가를 위한 에듀테크 활용 지원

디지털 대전환으로 사회와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자기주도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에듀테크 등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주도의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실로의 변화를 기대한다. 디지털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대하는 교실 수업의 장면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 개인별 학습 정보를 분석하고, 개별 학생의 수준과 이해도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평가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지원

학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수요가 반영된 다양한 선택 과목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교원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는 학교 시설과 중장기 교원 수급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나. 교육청 수준의 지원

- 1)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 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나)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다)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이 가능하도록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라)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마)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 수급, 시설 확보, 유연한 학습 공간 조성,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 실습과 전문 교과 실습이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교육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기준과 지침 등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시설 및 설비가 목적에 부합하게 설치·사용되는지, 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지원함에 충분한지 등을 단위 학교가 자체 점검하여 노후화된 시설은 정비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또한 다양한 학생 교육 프로그램, 교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보충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먼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 진단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해당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적극 안내한다. 또한 성취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단위 학교에서 방과후 지도, AI 맞춤형 학습, 학습 관리 튜터링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기초학력 향상 및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수업 모형과 예시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해당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단위 학교에서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을 위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의 안전의식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안전교육 종합계획을 안내하고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생활안전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한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 실습·체험 중심 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구축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나아가 학교 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행정기관 및 단위 학교와 유기적인 소통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난 및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재난 대비 단계와 안전 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리적 위기 지원 및 학생건강 보호, 안전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고등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생이 진로·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진로·학업 설계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교원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를 지원한다.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교육과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운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예산을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 교육청 수준의 온라인학교를 구축하여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한다. 한편,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소인수 과목 운영, 동아리 활동 운영, 정규시간 중 발생하는 공강 시간의 활용 등을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유연하게 활용가능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습 공간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특성화된 교육과정에서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현장 실습과 전문 교과 실습 운영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연계·협력하여 특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산학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른 현장 실습과 전문 교과 실습이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시·도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현장 실습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산업체 등과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 3)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개발, 인정,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 4) 학교가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자유학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안내한다.
- 5)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시·도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개발·보급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더불어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예시 자료(교육과정 편성,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 운영 등)와 교수·학습 자료 등을 조기에 개발·보급하고, 매 학년도 개시 이전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교원 수급 계획을 세워 교원의 전보가 적절한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과용 도서 개발·인정·보급

시·도 교육청은 국·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 도서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과서나 지도서 외에도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지원하며, 디지털 매체 활용을 포함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특히 디지털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 제작 연수, 우수 사례 보급, 디지털교과서 교사지원단을 활용한 학교 컨설팅 등 디지털 교과서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의 우수한 교육 자원 발굴·안내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하여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자유학기 등을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활용가능한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발굴·안내해야 한다. 또한 발굴된 교육 자원에 대한 승인과 관리 및 재평가 등과 같은 지속적인 환류 과정을 통해 교육 자원 관리를 내실화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학교 간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 구축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점제 기반 선택 과목 운영, 진로 선택 과목 및 융합 선택 과목 등과 같은 체제 변화에 따른 교원 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학생 배정, 교원 수급 및 순회교사 운영 등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단위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학생 배정 문제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개별 학교에서 갖추기 어려운 시설과 설비를 관내 학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 6)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가)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수·학습, 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나)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 교사제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 운영

시·도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도 및 교수·학습, 평가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한 현장 교원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한다. 연수 과정은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의 설계·실행·공유를 통해 실천 역량 강화 중심의 연수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 등에 소속된 교육 전문직원 및 일반 행정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지역 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운영 및 편성·운영 자료 개발·보급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단위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은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연수 지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모형 개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연구,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 개발·보급 등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한다.

● 연구학교, 연구 교사, 교과별 연구회 활동 지원

시·도 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수업 개선 등을 위하여 단위 학교의 상황과 교육청의 정책적인 판단을 종합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 및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영역에서 교수·학습 지도 능력과 연구 수행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연구 교사로 지정하여 학교 현장의 연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과별·주제별·학년별·학교별 교원들의 자발적인 교원 연구 모임을 발굴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개인차에 따른 맞춤형 수업 운영,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7)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교수·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가)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원격수업 기반 구축,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나) 수업 설계·운영과 평가에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 및 도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와 기자재 확충을 지원한다.

● 원격수업의 효과적 지원에 관한 규정

「원격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원격수업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하여 시·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2022년 1월)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서버·소프트웨어·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교의 원격수업 준비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수업 제공과 학생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시·도 교육청은 교원의 원격수업 설계 및 콘텐츠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연수 및 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운영에 대한 지원

시·도 교육청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무선망 고도화, 정보화 기기 보급 등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교수·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디지털 기반 플랫폼(공공 및 민간 플랫폼)과 다양한 화상수업 도구 등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와 기자재를 확충한다. 나아가 교원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운영, 디지털교과서 및 디지털 콘텐츠 활용 수업, 온·오프라인 수업 사례 개발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6a).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초등학교. 교육부.
- 교육부(2016b).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학교. 교육부.
- 교육부(2016c).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교육부.
- 교육부(2021).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 교육부(2022a), 보도자료: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
- 교육부(2022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 김경자·곽상훈·백남진·송호현·온정덕·이승미·한혜정·허병훈·홍은숙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최종안)개발 연구. 교육부·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 박남국·김대현(2019). 초등학교 학교수준 교육과정 자율성에 관한 연구-지침과 공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 연구와 실천, 1(2), 87-117.
- 온정덕·김경자·박희경·홍은숙·황규호(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초등학교) 개발 연구. 교육부.
- 이병호(2009).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 체제 개선방안. 교육과정연구, 27(4), 21-45.
- 이승미(2019).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른 교육과정 문서 체제의 개선 방향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9(3), 77-97.
- 정영근·서근원·주철안·황성원·조재식·남궁상운(2009). 국가 교육과정 관련 문서 체제 개선 연구, 연구보고 RRI 2009-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혜정·김영은·이주연·곽상훈·김광하·김기탁·김용진·박지만·진동섭·최동선·한충희·황유진(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중·고등학교)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황규호·소경희·백남진·유영식·손미현·장은경·홍원표·이승미·김종훈·손민호·온정덕·정혜승·맹은경·김선희·차조일·신영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설정 연구.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 황규호·소경희·강현석·온정덕·백남진·최종선·이승은·박영출·손미현·김진원(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 황규호·온정덕·박일수·백남진·이주연·김성미·안나·김현우·손미현·방길환(2023).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 연구.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 ACARA (2013). General capabilities in the Australian curriculum. Retrieved from <http://www.australiancurriculum.edu.au/Download/F10>
- ACARA (2022). Version 9.0 The Australian Curriculum. Retrieved from <https://v9.australiancurriculum.edu.au/>
- ACARA (June, 2020). The Shape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Version 5.0

- Australian Education Ministers (2019). Alice Springs(Mparntwe) Education Declaration. Education Council.
-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ducation (2016). Curriculum Overview. Retrieved from <https://www.curriculum.gov.bc.ca/curriculum/overview>
-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ducation (2021). Vision for Student Success. Retrieved from <https://www2.gov.bc.ca/gov/content/education-training/k-12/administration/program-management/vision-for-student-success>
- Department for Education.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Framework document., December 2014.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national-curriculum>
-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6).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basic education 2014.
- Jakson, P. W.(1992). Conceptions of curriculum and curriculum specialists. in Jackson, P. W. (Ed.) (1992). *Handbook of research on curriculum: A project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Jerald, C. D. (2009). Defining a 21st Century Education. Center for Public Education.
-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2018). How the key competencies evolved over time: Insights from the research.
-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 (2015). The New Zealand Curriculum.
- OECD (2020). *Curriculum overload: A way forward*. Paris: OECD Publishing.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France: OECD.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education/2030/E2030%20Position%20Paper%20\(05.04.2018\).pdf](http://www.oecd.org/education/2030/E2030%20Position%20Paper%20(05.04.2018).pdf)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Concept note OECD learning compass 2030.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0). Technical

Report: curriculum analysis of the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2). The OECD Learning Compass 2030.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learning/>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2021a). Our Mission and Vision. Retrieved from <https://www.moe.gov.sg/about-us/our-mission-and-vision>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2021b). Desired Outcomes of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moe.gov.sg/education-in-sg/desired-outcomes>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2021c). 21st Century Competencies.

Retrieved from

<https://www.moe.gov.sg/education-in-sg/21st-century-competencies>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2023). Pathways and Possibilities: Singapore's Education Journey.

World Economic Forum (2016). *New Vision for Education: Foster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through Technology*. World Economic Forum.

World Economic Forum (2020a).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

World Economic Forum (2020b). *Schools of the Future: Defining New Models of Educ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文部科学省(2017). [総則編] 小学校学習指導要領 (平成29年告示) 解説. Retrieved from https://www.mext.go.jp/content/20230308-mxt_kyoiku02-100002607_001.pdf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부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1.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1945)7)

8·15 광복에 따라 각급 학교에 적용할 교과목과 수업 시간을 정하였으나, 충분한 시간이 없어 일관된 철학적 입장을 정립하지 못했다. 일제 강점 말기의 교과목 및 시간 배당을 근간으로 하였으나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일본 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수신과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공민과를 신설하였으며, 일본어·일본 역사 대신에 우리의 말과 글 중심의 국어 교육과 국사 교육을 강조하였다. 수업시수는 1주일에 32~36시간으로 1일 평균 5~6시간 정도이며 교과별로는 국어가 주당 5~7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2. 교수요목기(1946)

광복 직후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수요목이 없어 이를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중등학교의 경우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교수요목을 포함한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을 제정하였다. 교과 편제에서 특이한 점은 공민·역사·지리를 통합한 '사회 생활과'가 등장한 점, 체육과 보건이 합해져서 체육·보건이 된 점,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 점 등이다. 각 교과목의 교수요목은 교수 요지, 교수 방침, 교수 사항, 교수의 주의로 구성되었다.

3. 제1차 교육과정(1954)

1948년 정부수립과 1949년 교육법 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새롭게 제정하자는 요구가 높아져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교육과정이 제정되었다. 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과정은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1차 교육과정으로 불린다. 이 시기에는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과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과 교육과정 강조의 시기라고 한다. 미국의 경험 중심 교육과정 사조의 영향으로 교과 외에 특별 활동이 처음

7)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법령으로 고시되고 몇 년 후에 학교에 적용된다. 이하 각 개정기의 연도는 총론의 고시 연도를 가리킨다.

으로 편성되어 전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광복 후의 사회적 혼란과 6·25 전쟁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반공·도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4. 제2차 교육과정(1963)

제1차 교육과정 제정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그 동안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동함에 따른 사회 생활의 변화와 문화의 발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이 개정되었다. 교수요목기부터 형식적이고 초보적인 형태로 반영되던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충실히 반영되었다. 교과 활동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된 계획이라는 의미에서 교과과정이라고 하지 않고 교육과정이라고 하였다. 단위제를 도입하고⁸⁾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따라 인문, 자연 등의 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단위 배당 기준은 각 과목별로 3년간 이수할 총 단위 수를 제시하고 학년별 이수 단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임을 밝히고 학교에 교육과정 재구성권이 있음을 명시하여 학교는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제3차 교육과정(1973)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고, 1969년 이래 국적 있는 교육이 제창되면서 민족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교과내의 과목이던 국민윤리와 국사가 교과로 독립되었으며, 국민윤리는 교과로 신설되면서 국어과 앞에 선임 교과로 편제되었다. 또한, 1957년 소련의 유인 우주선 스푸트니크(Sputnik)호 발사로 인한 충격 이후 미국 교육계를 주도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팽창하는 지식의 양에 대응하여 기본적 개념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학생 스스로가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이를 수용하여 각 교과에서는 교과가 기초하는 학문의 기본 개념을 중시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점차 심화·확대해 나가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조직 형태를 취하며, 수업 방법에 있어서는 발견 학습과 탐구 학습을 강조하였다.

8) 교육과정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단위제에 의거하되, 학교의 실정이 단위제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학년제, 또는 단위제와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6. 제4차 교육과정(1981)

제5공화국의 출범과 1980년의 7·30 교육 개혁 조치 등 정치·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을 위탁하여 교육과정의 전문화를 추구하였다. 자유 선택 과목이 신설되어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및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이 인문계,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 별로 각각 편제되었던 것을 통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단일화하였다. 교육 내용의 분량을 조정하여 전체 이수 단위를 204~216단위로 축소하고 1단위는 1시간씩 18주 이수하던 것을 17주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7. 제5차 교육과정(1987)

이전 교육과정 시행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서 정보 통신 기술 이용의 보편화,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 등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종전의 자유 선택을 교양 선택으로 바꾸고 최소 2단위를 배정하여 교양 선택 교과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였다.

이수 단위의 표시를 급간제에서 기준 단위제로 변경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학 계열, 예술 계열의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특별 활동에서 학급 활동을 신설하여 강조하였다.

8. 제6차 교육과정(1992)

21세기를 대비한 세계적인 교육 개혁의 추세에 따라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운영 체제에서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 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교육과정에 관한 국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위임하여 역할 분담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어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보통 교과는 공통 필수 과목만 교육부가 지정하고, 과정별 필수 과목은 시·도 교육청이, 과정별 선택 과목은 학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국제화에 대비하여 외국어에 관한 전문 교과를 신설하였다.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총 이수 단위를 204단위로 조정하고,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12과목 내외로 감축하였다.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특별 활동에 단체 활동을 신설하였다.

9. 제7차 교육과정(1997)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고자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의 하나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골격을 제시함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한 제7차 교육과정은 초·중·고의 교육과정을 단일 교육과정으로 통합하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으로 설정하고 10개의 공통 필수 교과를 배우도록 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교과의 특징 또는 교과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단계의 특징에 따라 단계형과 심화·보충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교과, 특별 활동 외에 제3의 영역으로 재량 활동을 신설하였다.

고교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이 기간 중에 배워야 할 모든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과목 136단위 중에서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각각 28단위 이상을 지정하고, 학생의 선택권도 최대 50%까지 보장하도록 하였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나누고, 일반 선택 과목은 5개의 과목군으로 나누어 각 과목군별로 반드시 1과목(교양 과목군은 2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 균형잡힌 이수를 도모하였다. 또한, 인문·사회, 자연 등의 과정을 국가수준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학교가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학기당 이수 과목은 10과목 내외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7년 교육법 폐지에 따라 삭제된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교육과정에 제시하였다.

10. 2007 개정 교육과정(2007)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등 사회·문화적 변화가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 및 내용 체계를 개편

하게 되었다.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의 범위를 최소화하였다. 교육과정이 개정된 연도를 밝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하였다.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별 단위 배당을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통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통합하여 선택 과목으로 일원화하고, 이수 단위를 6단위(교양 등 일부 과목은 4단위)로 통일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5개의 선택 과목군을 6개로 조정하여 예·체능 과목군을 체육 과목군과 예술 과목군으로 분리함으로써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1.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 고시 전후로 이루어진 ‘국가 교육과정 포럼’과 2008년에 수행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⁹⁾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구상안에서는 ‘글로벌 창의인재’를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설정하고, 공교육 정상화 및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에 따라 교육 발전 목표 재설정,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학교교육 운영의 자율성 신장, 교육과정 운영 체제의 효율성 제고 등의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기당, 분기당, 주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하로 운영하고 초·중학교에서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한다. ②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교육 활동 강화를 위해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 및 강화한다. ③ 기초·기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 9년으로 조정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체제를 공고히 구축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9)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통해 글로벌 사회를 주도할 창의 인재 육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을 미래형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09). 세계적인 사람은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을 뜻하고 창의적인 사람은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무한히 성장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교양 있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상생을 추구하는 사람을 뜻한다.

정비하여 기초 핵심역량 강화 교육과정으로 혁신한다. ④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교실개혁을 유도한다. ⑤ 학습부담 및 과도한 입시 사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고등학교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에 대비하여 충실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09년 12월 23일 고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러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12월 23일 고시된 이후 학교 현장에 원활히 적용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부분 개정의 배경과 추진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2011년 8월 9일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이 먼저 개발되고 그에 따른 각 교과목별 교육과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때 고등학교 교과 편제(보통 교과, 전문 교과)를 수정 고시함으로써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 2) 2012년 3월 21일에는 사회 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탐구교과 영역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 일반 과목에 ‘사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제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생활·교양 교과 영역 교양 교과(군) 일반 과목에 ‘실용 경제’를 신설하고, 과목 선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교과(군)에 속하는 과목의 경우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 3) 2012년 7월 9일에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안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총론 및 일부 교과 교육과정(국어, 사회, 도덕)을 개정하였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성교육을 보다 지속적이고 융통성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집중이수제 지침을 수정·보완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 4) 2012년 12월 13일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교육을 강화했다. 기존의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산업계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운 능력을 졸업 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 적

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구분하고, 각각 단위배당 기준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을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d).

- 5) 2013년 12월 18일에는 일반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고 필수 이수 단위를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했다. 또한 과목별 이수 단위를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서 ‘한국사’를 6단위 이상 이수하고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필수 이수 기준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고등학교 체육 필수 이수 단위를 10단위 이상으로 조정하고, 공교육을 통해 논술의 기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양 선택 과목으로 논술과목을 신설하였다(교육부, 2013b).

12. 2015 개정 교육과정(2015)

가. 공통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 과목 신설

제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인문과정과 자연과정(문과와 이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으로 약칭) 체제가 여전히 두 과정의 구분을 전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여전히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인문과정의 학생들은 과학 교과에 대한 공부를, 자연과정의 학생들은 사회 교과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2005학년도 수능 이후부터는 이러한 과정 구분에 따른 지식 편식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2005학년도 수능은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 수능으로서 수능의 계열 구분(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이 폐지되고 ‘선택제 수능’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탐구 영역을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신설)로 구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 중 한 영역을 선택하여 사회탐구는 11개 과목, 과학탐구는 8과목 중에서 각각 4과목씩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탐구영역 응시 선택 과목 수는 2012학년도 수능 이후 4과목에서 3과목으로, 2014학년도 수능 이후 2과목으로 축소됨으로써 학생들의 지식 편식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이러한 지식 편식 현상은 학문적인 융합을 강조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이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과정 구분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지식 편식을 막고 균형

있는 지식 습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에서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으로 구성된 ‘공통 과목’을 개발하고 그것을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회 교과와 과학 교과의 공통 과목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등 융합적인 과목으로 개발하였다. 통합사회는 학생들이 삶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9개의 주제(행복, 자연환경, 생활공간, 인권, 시장, 정의, 문화, 세계화, 지속가능한 삶)를 선정하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사고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교육부, 2015b: 24). 한편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4개의 대주제(물질의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분과 학문적 지식 수준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통합을 통한 융복합적 사고력 신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교육부, 2015b: 25).

나.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 과목 다양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 이후 변함없이 지향하는 기조이다.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 받아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한 후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다양화하였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 흥미와 관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일반 선택 과목’은 교과별 주요 학습 영역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다루는 과목으로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으로 구성하였고,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하였다(교육부, 2014a: 12).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 학생이 원할 경우 학교가 가능한 한 이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침을 신설하였고,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로 선택 과목을 3개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지침을 두었으며, 진로에 따라 다양한 선택 과목을 조합한 ‘맞춤형 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과목 선택에 대한 진로 지도를 강화하는 지침을 신설하였다(교육부, 2015b: 23).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통 교과의 심화 과목으로 배치되어 있던 특수 목적 고등학교 대상 과목은 ‘보통 교과’에서 분리하여 ‘전문 교과(전문 교과 I)’로

별도 제시되었으며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에서도 학생의 희망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전문 교과’ 과목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 국어, 수학, 영어 비중 적정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전 과정이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아울러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지정·운영되면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은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주지교과의 수업시간을 확대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교육부는 일반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반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교육부, 2013a)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의 교과(군) 총 필수 이수 단위는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되고 학교 자율 과정은 94단위로 확대되었으며, 교과별 이수 단위 증감 범위도 기본 단위수 5단위에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새롭게 신설된 것이 “기초 교과 이수 단위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교육부, 2013b: 9).”라는 지침이며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이 규정을 권장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국어, 수학, 영어 비중을 적정화하고자 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균형 학습’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균형 학습은 사회 교과와 과학 교과 사이의 균형 학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위 주요 교과로 인식되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 학습과 그 이외의 교과에 대한 학습 사이의 균형 학습을 의미하기도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보통 교과를 4개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 것은 다양한 교과에 대한 공부를 골고루 학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꾀하기 위함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국어, 수학, 영어 학습의 비중을 적정화함으로써 다양한 교과에 대한 균형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를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교과 영역에 한국사(6단위 이상)가 포함됨으로써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는 90단위가 아닌 84단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규정은 더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서 권장 사항이었던 이 규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무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라.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의 연계 강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갖는 가장 큰 변화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로 약칭)을 기반으로 고교 직업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2조)”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산업계의 교육훈련 요구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함으로써 역량(competencies) 또는 학습성과(learning outcomes, NCS 기반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성과가 NCS를 기반으로 설정됨)에 기반을 두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학교교육내용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현 정부도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조기 개발과 이와 연계한 학습모듈 개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NCS에 기반을 둔 국가수준 고교 단계 직업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4).

일반적으로 직업능력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직업기초능력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을 말하며, 직무수행능력은 직종마다 독특하게 요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이무근 외, 1997; 정철영 외, 1998). 그리고 고교 직업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을 포함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어 왔으며, 직업기초능력은 여러 직종에 걸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출된 별도의 하위요소들을 활용하여, 직무수행능력은 직무분석 등을 활용하여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기본 방향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맥을 함께 하는 것이다. 즉, 개별 직종(또는 NCS세분류)별로 제시된 다양한 내용들(구체적으로는 NCS 능력단위, NCS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등)을 활용하여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교 직업교육과정을 통하여 직업기초능력을 포함한 기초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본 방향이 특성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의 일환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교육부, 2015a).”라고 제시하였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 함양’이 특정 분야에 국한된 직무능력에만 국한하지 않고 직업기초능력이나 창의 역량 등의 다양한 형태의 역량을 포함한다는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다.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
록

- MEMO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교육부